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45호] 2023년 8월 15일

04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
국내 첫 국제표준화기구 수장

06~07 자연에 터 잡은 젊은이들
이지현·강윤영·나현우·김요나 동문

12 바리톤 김태한 동문
아시아 남성 첫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19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러시아 승리 땐 약육강식 세계 될 것

융합으로 미래 연다, 218명의 도전

8월 1일 관악캠퍼스 기초교육원에서 열린 첨단융합학부 학내 공청회에서 송준호 설립준비단장이 첨단융합학부 교과과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첨단융합학부 신설, 내년 출발

지난 4월 모교는 2024학년부터 정원 218명 규모의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데이터과학 △지속가능기술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등 5개 신생 전공을 포함한 학부다. 이로써 1990년대 이후 3300명대로 유지됐던 모교 입학 정원이 30여 년 만에 순증했다. 당장 7개월 후에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모교는 분주하게 학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모교가 첨단융합학부를 설립하는 배경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부족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한 달 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반도체·AI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운다는 방안을 내놨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12만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급 규모는 10년간 5만명에 불과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간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유지·감축하도록 유도해 왔지만, 첨단분야에 한해 정원 증원이 쉽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했다.

모교가 교육부의 첨단분야 증원과 학과 신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공대 시스템반도체공학전공과 약대 첨단신약학과 신설 및 기존 학과 증원을 포함해 총 334명을 증원 신청했다.

그러나 3월 초 교육부에서 '보다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제시하라'는 보완 요청을 받고 틀을 다시 짰다. 모교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미래지향적 융합 인재 양성의 필요성, 모교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공통핵심역량 교육과 첨단 분야 심화전공 교육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교육기구 신설을 3월 말 새롭게 제안했고, 한 달 후 5개 전공(디지털헬스케어, 융합데이터과학, 지속가능기술,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과 정원 218명 증원을 골자로 한 첨단융합학부 신설이 승인됐다. 〉〉3면에 계속

관악춘추

JP의 미덕, 설렘과 호기심

전영기
정치80-84
시사저널 편집인
본지 논설위원

정치부 기자였던 필자에겐 "총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한 김종필(JP) 제11·31대 국무총리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부의 1946년 입학 학번이다. 김종필 총재는 살아계실 때 필자에게 "영국 이튼 스쿨에 대한 동경이 나를 사범대로 이끌었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한 웰링턴 장군이 '난 이튼 정신을 갖고 싸웠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 교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했지. 나도 이튼 스쿨 같은 학교를 만들어 해방 조국을 이끌어갈 후진을 키워보자는 꿈을 가졌어요"라고 말했다(《김종필 증언록-소이부답》 2016년, 중앙일보).

김종필은 부친의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면서 1948년 6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JP의 서울대 학부 재학기간은 1946년 3월부터 1948년 6월까지 2년 3개월인 셈이다. 그에게 '서울대 동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치자문역으로 근무했던 그레고리 헨더슨 같은 사람들은 서울대 시절 김종필이 '국대안(國大案) 파동'에서 좌익 편에 섰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낭설이다. JP는 대학 때 자신이 국대안에 찬성 입장이었다는 점을 선명한 기억과 함께 필자에게 상세하게 얘기해 줬다. 헨더슨씨는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 1963년 2월 버거 미국 대사와의 담판 끝에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원조 선박의 밀가루가 한국 땅에 풀리게 되었다. 김종필의 결기가 헨더슨의 정치적 입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헨더슨씨는 귀국 조치되었다. 두 사람 간 갈등과 앙금이 상당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추정이다. 그건 그렇고 JP는 결국 1949년 1월, 육사 8기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교사에서 군인의 길로 방향을 틀었다.

이제 요즘 얘기를 해보자. 전쟁, 혁명, 정치의 온갖 풍상을 겪고 JP가 92세로 유명을 달리한 게 2018년 6월 23일이었다. 매년 충남 부여 고향 묘소에서 조촐하게 치러지던 그의 추도식은 올해 6월 23일 5주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서울, 그것도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석 속에 엄수되었다. 2018년과 2023년의 정치적 환경 차이 덕분일 터인데 염량세태(炎涼世態)를 느낄 수 있었다. 김종필 총재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김 총재의 인간미와 유머, 극단적이지 않은 중용의 미덕에 대해선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JP의 미덕에 설렘과 호기심을 추가하고 싶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나폴레옹의 유언인 "아, 유성(流星)…군대…조세핀"을 되뇌며 낭만적인 표정을 지었으니 말이다.

서민석 동문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

서민석(섬유공학61-66) DI동일 회장이 7월 27일 본회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서 동문은 1978년부터 2019년까지 DI동일 대표로 활동했다. 본회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존에 6500여 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한 류명준(언어90-97) 동문이 860여 만원을 추가 기부했으며, 약대동창회가 기존에 조성한 1억600여 만원의 기부금에 500만원을 더 보내왔다. 이광진(법학77-81) 동문은 장학금 2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알 림

10월 15일 홈커밍데이에서 만나요

총동창회는 오는 10월 15일 일요일에 '2023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동문님들을 모교로 초대해 재학생들이 준비한 모교 투어 및 동아리 축하 무대, 음악대학에서 준비한 홈커밍데이 음악회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 모교를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일 시 : 10월 15일(일) 11시~17시 30분
장 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버들골·풍산마당
*우천시 실내(종합체육관) 행사로 대체
행사내용 :
(11:00~14:00, 캠퍼스 일대)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천체투영관, 중앙도서관 등 캠퍼스 자유 탐방
*기관별 도슨트 등 자세한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14:00~16:00, 버들골) 참가 신청 및 행운권 접수, 동아리 활동 참관, 미니게임 참여 등
*재학생 동아리 공연 및 행운권 추첨
(16:00~17:30, 풍산마당) 개회식,음악회
참여방법: 당일 버들골 접수처에서 참가 등록

※도시락 대신 간단한 간식과 생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풍산마당에서 푸드트럭 운영)
※총동창회의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올해 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회 비: 연회비 5만원 또는 평생회비 50만원 (65세 이상은 30만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1-180304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행사 비용 협찬 : 10만원 이상
지 로: 인터넷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납부
은행계좌: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연도 표기 (특별과정은 이름, 과정명, 기수 표기)
문 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보내주신 정성에 대한 고마움의 뜻은 '서울대 총동창신문'에 영원히 기록하겠으며, 정성껏 마련한 답례품도 준비하겠습니다.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자식하고 대화 안 되는 사람이 회사에서 소통될까요"

관악경제인회 조찬포럼

권오현 (전기공학71-75)
모교 이사장·삼성전자 상근고문

세계적 혼란 리더십 부재 방증
시간 절반은 미래 생각해야

관악경제인회 제1회 조찬포럼은 주영섭 모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권오현 동문이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 세계적인 혼란은 곧 전 세계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믿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리더가 부재하는 현실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 사람들이 갑자기 다 멍청해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도전을 기피하는 풍조, 미래를 내다보기보단 현재의 틀에 갇힌 사고 때문에 리더십이 실종됐다고 생각해요."

관악경제인회가 7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부섭(화학공학56-60) 회장, 이희범(전자공학67-71) 명예회장, 조완규(생물48-52) 전 모교 총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이 연단에 올랐다. 2017년 삼성전자 회장을 맡아 국내 대표기업을 넘어 글로벌 최강 기업으로 일군 권오현 동문은 모교 이사장 및 모교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SNU홀딩스의 초대 의장을 겸임하는 등 서울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은 주영섭(기계공학74-78) 모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청중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6·25전쟁 후, 최빈국에서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까지 '패스트팔로워'로서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난 성과에 취해 자만에 빠져 '퍼스트무버'로 거듭나는 데 주저하고 있어요. 크게 성공한 사람의 단점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딱 그 모양새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개 각 분야의 장이시지만, 솔직히 하루에 몇 시간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데 쓰십니까? 눈앞의 이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운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조직의 장이라면 자기 시간의 절반은 미래를 생각하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 동문은 충분히 성숙되고 나면 개선의 여지가 확 줄어드는 효율성에 여전히 대다수 리더들의 생각이 갇혀 발전이 멈춰 있다며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영웅은 많은데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분별력을 잃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리더급 인사들이 존경을 못 받는 중요한 이유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치권에서 흔히 회자되는 소위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말로는 사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출세를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임기 내 성과를 올리는 데만 골몰한다는 것.

"좋은 리더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좋은 가장이냐'고 되묻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말에 놀러 가자' 해놓고 막상 주말이 되면 '바쁜데 어딜 가냐'는 식으로 약속을 깨는 것도 내로남불이에요. 가난한 시절엔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해줘도 가장으로서 면을 세울 수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물론 조직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빈국 출신 상사와 선진국 출신 신입사원이 함께 일하는 격이죠. 기성세대가 경제성장을 일궜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양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필요해요."

시작은 역시 가정에서부터다. 권 동문은 집안에서 제 자식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남의 자식과 소통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정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없었는지 돌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부모가 또 상사가 나쁜 의도로 말을 걸진 않을 터인데, "아버지가 귀가하면 자식들은 제 방에 들어가 안 나오고, 부하 직원은 먼저 다가오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통하려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상대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식에겐 공부 말고 게임 얘기, 부하 직원에겐 일 얘기 말고 요즘 관심사를 화제 삼아 연습해야 한다고. 뭐든 빨리빨리 끝을 보려는 효율성 중시 문화가 압축 성장엔 도움이 됐지만, 대화나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덴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효율을 중시하는 건 교육도 마찬가집니다. 모범생을 키우는 현재의 교육으론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 인재의 국제적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틀리지 않는 기술에 특화된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단 안전한 길을 가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옛날에 서울대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갔구나'였는데 지금 서울대 출신들은 제가 느끼기엔 '공부만 잘하지 리더십은 전혀 없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모교가 얌체를 키우는 조직이 되고 있어요. 리더급 인사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처럼, 서울대도 국내 최고 교육 기관이란 타이틀은 유지하겠지만, 존경도는 점점 더 떨어질 거라 봅니다."

권 동문이 구상하는 바람직한 모교의 변화는 학교 거버넌스 체제의 대대적 정비에서 시작된다. 총장 임기 4년, 이사회 임기 2년으론 학교 운영의 일관성, 연속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서울대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지금 같은 체제에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고.

권 동문은 또 학교 재정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10년 전 법인으로 나왔다는 건 나라로부터 '분가해 잘 살라'는 의미인데 아직도 국가보조금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며 "시집 장가갔는데 계속 친정집 시가집에서 돈을 받아 쓰는 굉장히 불합리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저는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방 대학이었죠. 어떻게 학교가 좋아졌느냐? 건물을 새로 지어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튼튼해져서 좋아졌죠. 서울대도 재정이 튼튼해져야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한 백업 플랜이 시급합니다. 스탠퍼드나 MIT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모교 교수들은 그런 창업을 해줘야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도 성공하면 크게 기여하는 그런 창업을요. 이미 있는 분야에서, 예를 들면 치킨집 같은, 같은 치킨인데 좀 더 잘 튀기는 그런 건 창업이 아니라 개업이에요. 기존 업계의 파이를 뺏는 격이라 사회에 적을 만들게 되죠. 서울대 교수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동문들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 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요."

관악경제인회는 이날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권 동문의 책 '초격차 리더의 질문'을 증정했다.

나경태 기자

권 동문은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자 전문 경영인으로서 삼성전자 회장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이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가 극심한 초경쟁 사회로 진입한 최근 10여 년간 삼성전자를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높이 평가받는다. 1985년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삼성에 입사, 1992년 세계 최초로 64Mb DRA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이후 삼성전자가 걷게 되는 '초격차 전략'의 실질적 토대를 닦았다. 2008년 반도체 사업부 총괄 사장을 거쳐 2012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Device Solution) 사업부 문장에 올랐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삼성전자는 2017년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에 오르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적이면서도 끈기와 집념이 강한 원칙주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전이나 불필요한 회의를 싫어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2017년 10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2020년 3월까지 2년간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기술원 회장으로서 경영 자문과 인재 육성에 열정을 쏟았다. 현재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모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공없이 입학해 영역 넘나들며 적성 찾기

첨단과학기술 분야 5개 전공 포함 3학기까진 교양교육, 이후 전공 선택 자립적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 중점

〉〉1면에서 계속 첨단융합학부 설립 준비 과정은 5월 말 2024학년도 입학전형 발표를 시작으로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장 가을부터 수시로 148명, 정시로 70명의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설립추진단이 꾸려졌다. 추진단이 교원 배치와 공간 확보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실무위원회와 전공별 소위원회에서는 교양과정과 전공별 교과과정 초안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7월 초엔 설립 준비단이 발족돼 송준호(토목공학92-96)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단장으로 임명됐다.

첨단융합학부의 큰 틀은 교육부 신청 단계부터 정해졌다. 입학 후 3학기 동안 교양과 학부 공통 교과목을 들으며 융합 역량을 키우고 5개 분야의 전공을 탐색한 다음, 4학기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골자다. 무전공으로 입학해 약 1년 후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전공학부와 비슷하지만, 첨단융합학부는 5개 첨단 분야 전공 내에서 고른다는 점이 다르다.

각 전공별 목표는 융합적 소양을 갖추고 산업체와 연구, 국가정책 분야에 진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전공은 미래 헬스케어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학·의학의 융합을, 지속가능기술 전공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소재 관련 과학기술의 융합을 내세웠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전공은 새로운 지능형 반도체를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려 한다. 혁신신약 전공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창약(신약개발)에 중점을 둔 기초과학·약학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융합데이터과학 전공은 데이터과학이 응용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이러한 기조로 7월 말 학부 전체의 교과과정과 학부 운영 계획의 초안이 완성됐다. 교과과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1일 열린 학내 공청회에서는 추진단 단장인 김성규 교육부 총장과 이지현 교육부처장, 송준호 설립준비단장, 교양과정 및 5개 전공별 소위원회 대표교수가 교과과정 초안을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3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첨단융합학부는 "첨단과학 기술 전문성뿐만 아니라 초학제적인 융합 소양과 소통, 협업 능력을 갖추고 공동체의 난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재상"을 내걸었다. 교과과정 초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1년 동안 배우는 교양 과정 '베리타스 세미나'(가칭)와 '베리타스 프로젝트'(가칭)다. '베리타스 세미나'는 다양한 전공 교수진의 지도 하에 기후 위기와 인류, 인간과 동물 등 초학제적인 주제를 정해 소그룹 토론과 글쓰기 등을 하는 수업이다. '베리타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팀을 이뤄 본격적으로 현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친다.

유홍림 총장이 "첨단융합학부에서 시작해 향후 전 신입생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힌 공통 교양으로, 기초교육원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여타 기초 교양 이수 조건은 타 학과와 같되, 첨단융합학부생들은 수학·과학·컴퓨팅 분야의 교양과목 1개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송준호 설립준비단장은 "첨단융합학부는 5개 전공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담긴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전공 탐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아카데믹·라이프·커리어'의 전방위적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학부 공통 교과목에도 이같은 취지가 담겼다. '첨단융합전공과 나의 미래'(가제)는 첨단융합학부에서 배울 내용의 설계도 같은 과목으로, 3학기까지 5개 전공의 소개와 롤모델 특강, 전공별 개론 학습과 실습 등을 차례로 들으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 가도록 개발되고 있다.

전공을 선택한 후엔 '패스웨이(Pathways)' 과목을 듣게 된다. △기술창업 △창의연구 △정책리더십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분야에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인턴십 등을 통해 학교 밖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과목이다. '기술창업 패스웨이' 과목을 선택할 경우 각 전공별 창업 교과목을 듣고, 타 학과에서 마케팅과 투자유치 등 실무 과목을 이수한 후 첨단융합학부가 연계해주는 창업 인턴십을 하게 된다.

촉박한 기간이지만 설립준비단은 교원과 공간 등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확정된 공간은 관악캠퍼스 18동. 인접 분야인 공대 및 약대, 자연대와 가까운 위치로 기존 입주 학과·기관과 협의 끝에 학부 전담 강의, 행정업무, 학생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추가 확보를 진행 중이다. 교원은 4개 학년이 모두 입학하는 2027년까지 40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속 변경 또는 겸무 등 학내 구성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 임용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융합학부는 역대 신설 학과와 기관 중 드물게 학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추진되고 있다. 모교는 10여 일간의 학내 의견 조회를 통해 교과과정과 교원, 공간 등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학부 영문명도 공모에 부쳤는데, 단 며칠 만에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선배가 없는 신설 학부 특성상, 총학생회가 학생처와 면담을 통해 18동 인근 학생식당 증설을 요구하는 등 신입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챙기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압축적인 교과과정의 문제와 전공 쏠림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왔다. 준비단 측은 "전공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타 학과보다 적은 만큼 해당 분야의 커리큘럼을 재편해 효율적으로 교과목을 구성했고, 전공 쏠림 문제는 밀착 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인턴십을 제공하는 패스웨이 등의 프로그램이 차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송준호 단장은 "패스웨이는 교과인증과정으로 개발해 첨단융합학부 외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첨단융합학부 실무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은 8월 말 교과과정을 확정하고 9월부터 교과목 신설과 편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모교 첨단융합학부 개요

신설 시기 : 2024학년도 1학기
세부 전공 :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데이터과학, 지속가능기술,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정　　원 : 218명
(수시모집 148명, 정시모집 70명)
교　　원 : 40여 명(소속 변경·겸무 등으로
기존 교원 활용,
신규 임용도 순차 진행)
커리큘럼 : 3학기까지 교양 수업 위주,
4학기부터 5개 전공 중 1개 선택
공　　간 : 관악캠퍼스 18동

1829명 증원, 모교 가장 많아

이번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통해 모교를 비롯해 수도권 대학 10개교에서 817명, 비수도권 대학 12개교에서 1012명의 정원이 순증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은 기존 학과를 증설하는 형태로, 모교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학과를 신설하는 형태로 증원이 이뤄졌다. 수도권에선 모교(218명), 가천대(150명), 세종대(145)명 순으로, 비수도권에선 경북대(294명), 전남대(214명), 충북대(151명) 순으로 증원이 많았다. 분야별로 전체 순증 인원 1829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반도체 관련 학과(654명)였다. 그 다음 미래차·로봇·스마트 선박(339명), 에너지신소재(276명), 바이오(262명), 인공지능(195명), 소프트웨어·통신(103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특성화·지역산업·관련 학과 간 연계 △교육과정 개편, △교원확보 우수성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여건의 4개 기본지표와 학과 간 연계융합 노력 등 대학의 의지를 함께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첨단 학과 신설 내용

분야	대학	학과명	배정
반도체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전공)	56
	성균관대	융합과학계열 반도체융합공학과	56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56
	이화여대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	30
인공지능	세종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51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24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30
소프트웨어 통신	덕성여대	가상현실융합학과	8
	가천대	금융·빅데이터학부	50
	덕성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15
에너지 신소재	가천대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50
	성균관대	융합과학계열(에너지학과)	40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지속가능기술 전공)	50
미래차·로봇·스마트선박	세종대	AI로봇학과	47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45
	세종대	우주항공드론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	47
바이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혁신신약 전공)	56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디지털헬스케어 전공)	56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	50
소계	**10교**	**19개 학과**	**817**

"창의적 사고, 어울리고 섞여야 나온다"

인터뷰

송준호
토목공학92-96
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장

송준호 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장은 내년 학부 신설과 동시에 초대 학부장으로 부임한다.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일리노이대에서 정년을 보장받고도 "한국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뜻으로 2014년 모교에 부임, 구조공학과 리스크 및 신뢰성 공학을 연구해왔다. 첨단융합학부를 통해 모교의 교육 혁신에 앞장서게 된 그를 8월 7일 35동 연구실에서 만났다.

-단시간 내에 학과 설립이 많이 진전됐다.

"5월부터 두 달간 설립추진단은 7차례, 실무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 구성만 봐도 이번 학부 신설에 우리 학교의 학부교육 혁신 의지가 담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의 주도가 아니라 자연대, 공대, 약대, 기초교육원과 인문·사회대 소속까지 총 26개 학과, 학부 교수님이 참여해 교과과정 초안을 준비해왔다."

-교육부 선정 과정에서 첨단 학과의 '융합 교육'을 강조했는데, 모교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서울대는 교육부의 주문을 '융합교육을 통한 첨단분야 국제선도'로 이해했다. 퍼스트 무버가 되고,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학생들을 양성해야 하고, 서울대가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유홍림 총장님께서 취임 당시 학내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던 '학부과정 융합교육' 구상과도 통하는 점이 있었기에 학교에선 무척 좋은 기회로 여겼다."

-4년 동안 융합과 첨단을 모두 배울 수 있을까. '수박 겉핥기'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융합과 첨단은 대립되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다. 그보다 '융합을 통한 첨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학교는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가길 바라면서 많은 과목의 이수를 요구하게 마련이지만, 융합의 기치 하에선 교과과정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꼭 필요한 교과목과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 교과과정의 방점을 뒀다. 학사·석사 연계도 권장한다."

-전공과 진로 탐색 교과목을 둔 것이 그 이유 같다. 개인별 멘토링도 지원한다고.

"진로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만, 교과과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주면서 적극적인 탐색을 장려하고 싶었다. 진로 탐색 과목인 '패스웨이' 과목은 교육적 효과도 노렸는데, 일례로 '창업 패스웨이'의 경우 사회적 책임감, 도전정신, '안전한 실패' 경험 등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하고 SNU공학컨설팅센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개발하고 있다. 또 학부 건물 한 층의 절반을 학생 공간으로 꾸미고, 전문 멘토링 인력이 학생들의 교육부터 생활까지 돌볼 계획이다. 선배들도 없는 학과에 용기 있게 들어온 학생들 아닌가. 한 명 한 명 정말 잘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첨단융합학부에 맞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소통, 협업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학부의 커리큘럼과 제도를 더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도 변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다. '융합을 통한 첨단'은 융합 이론을 배운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통섭의 문화와 공동체를 통해 체득하는 소양이라 믿는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전공 친구를 둔 혁신신약 전공자에게서 어떤 멋진 생각이 나올지 모른다. 서로 어울리고 섞이면서 'Think Outside the Box'(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첨단융합학부는 오로지 학부 교육 잘 시키는 것이 목표인 곳이다. 즉, 대학원을 두고 연구사업과 과제를 수행하는 단과대학에 비해 재정이며 기금 조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동문님들의 투자와 응원이 절실하다. 첫 신입생이 전공에 진입하는 2025년 2학기부터 전공 분야 실습 실험 기기와 공간이 필요해진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서울대 전체 교육의 혁신에 투자한다 여기시고, 많은 조언과 도움 주셨으면 한다."

"ISO 회장직, 일대일로 밀어붙이는 중국 따돌리고 따냈죠"

조성환 (기계공학80-84)
현대모비스 대표

대담: 김광덕 (정치82-86)
서울경제신문 부사장겸 논설실장

지난해 9월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이 한국인 중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베스트셀러 '축적의 시간' 저자인 이정동(자원공학86-90) 모교 교수는 지난 6월 본회 조찬포럼에서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비즈니스 질서를 정한다"면서 "한국인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수장을 배출했다는 건 한국 기술과 산업에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8월 10일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조성환 대표를 만나 ISO 수장으로서 소감, 포부 등을 들었다. 조 동문은 2024년부터 ISO 회장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새벽 4시쯤 일어납니다. 씻고, 1시간 정도 명상, 기도, 독서를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다음 식사하고 5시 40분쯤 집을 나섭니다. 집이 수원인데, 회사 오면 6시 40분 정도 됩니다. 이후는 보통 일과를 처리하고요. 9시 전후 잠자리에 듭니다. 보통 6시간 30분 자는 셈이죠. 오래된 습관입니다. 루틴이 깨지면 살짝 불안합니다. 특히 아침 명상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지요. 여러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등 저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ISO 회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우리나라가 ISO에 1963년 가입했는데, 한 번도 회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회장국이라 해서 우리나라 표준 활동이나 국제적 위상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회장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 민간기구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해야죠. 실질적인 포부라면 한국 출신의 회장이 뭔가 ISO 역사에 남길 만한 기여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이 한 단계 발전하고, 표준 활동 기구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특히 전기차(EV)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는 원천기술인 글로벌 표준특허를 많이 가진 나라와 기업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 각종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표준화 작업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ISO 회장으로서 글로벌 표준과 혁신기술 사이의 리드타임을 줄여나가고 회원국들이 관심을 두는 현실 문제를 청취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ISO 회장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일대일로 정책 중 하나로 공들인 게 표준화 관련 일입니다. ISO 상임이사국은 물론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EC(국제전기표준화회의)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되죠. 작년 선거가 있을 때 마침 IEC, ITU 주요 직책에서 중국이 내려오는 때였어요. ITU는 미국인, IEC는 벨기에 사람이 됐는데, ISO는 한국에서 맡아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미국 등 서방 진영으로부터 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저희 현대차그룹으로 요청이 왔고 그룹에서 저를 추천한 거죠. 처음에는 단독 후보로 알고 수락을 했는데, 중국에서 후보를 내는 바람에 경선이 됐습니다. 총회 3개월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룹의 해외망과 코트라 등의 국제조직을 활용하고, 브라질,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 실무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죠. 코로나 시기라 영상을 통한 선거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다행히 꽤 큰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한국이 주도할 만한 표준이라면.

"우리나라가 어떤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까 말씀 전에, 표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든 표준에서 벗어나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도 할 수 없지요. 국가 표준 활동 점수가 있습니다. ISO에 참여하는 163개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8위입니다. 그만큼 표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양자역학, AI,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미래 기술 분야도 다 표준화가 돼야 합니다. ESG 분야도 빼놓을 수 없고요. 첨단 미래 분야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이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6G에서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결국은 표준으로 이어져야, 소위 말하는 '큰 흥행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경제 발전과 표준, 기술 발전과 표준, 그런 함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조 동문이 대표로 부임 이후 현대모비스 연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계 6위 규모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ISO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B2B(기업간거래) 중심인 현대모비스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 조 동문은 "우리 회사를 단순 자동차 부품 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급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 회사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고 했다.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전동화 분야에서도 많은 기술을 갖고 있죠? 비전을 들려주십시오.

"모비스의 사업영역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돼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모듈, 부품 제조.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중요한데, 우리가 B2B(기업간거래)로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 모비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필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번 인터뷰가 모비스라는 회사의 본질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3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행사 때 '완벽한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와 최적화된 반도체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Mobility Platform Provider)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를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모듈화해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기아차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완성차 업체로 매출을 늘리려 해요. 고객 베이스를 넓히면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가 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의 전환,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넘어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변신. 이 두 가지가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기술은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현재 모비스는 레벨3의 기술을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레벨3를 제네시스, EV9에 적용하는데 거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어떤 수준인지.

"쉽게 말해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잠깐 딴짓을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차가 책임지고 주행을 못하면, 내가 다시 핸들을 잡고 운전해야 하는 게 3단계입니다. 덧붙여 4단계는 제한된 상황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상태고, 5단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고요."

조 동문은 본고사 마지막 세대로 당시 최고 인기 학과였던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것에 자부심도 크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문과 계열 학과로 진학하라고 조언했지만, "기술이 최고"라며 공대를 권유한 부친을 믿고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교수를 꿈꾸며 미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현대차 입사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계를 전공하면서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을 전공했죠. 당시 한창 그 분야가 각광 받을 때였어요. 박사까지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며 돈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한국에서는 어려웠습니다. 포항제철의 유학 장학생 프로그램에 응시해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로 갔죠. 박사 학위 후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석사 때 지도교수님이 현대차로 오라고 해서 바로 들어왔죠. 공부하면서 교수도 좋겠지만, 사회로부터 많이 받았으니 기업에 가서 기여하자 해서 왔죠. 현대차는 대학원 다닐 때도 프로젝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 회사였고요. 마북리 연구소로 출발해 엔진 전문가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엔 조금만 하다 학교로 옮길 생각도 있었는데, 배운 것을 실제로 써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년이 근무한지 30년째입니다."

-보람된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미쓰비시와 크라이슬러에 세타 엔진 라이선스를 팔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현대차가 미쓰비시의 엔진을 들여다 시작했었는데, 기술을 수출하게 된 거죠. 또 싼타페에 승용 디젤 엔진을 처음 장착해 크게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 개발 과정에 참여해 결실을 맺었을 때 보람이 컸죠."

-내연기관 전문가로 살아오다가 전동화 시대를 맞았는데요.

"2012년 미국연구소 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엔진 개발에서는 손을 떼고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시작됩니다. 미국서 4년 근무하다 한국 연구소에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기획하고 전략 짜는 일이지요. 그 무렵 전동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관리 분야로 완전히 트랙을 바꾼 다음이죠. 그래서 전동화에 대한 개인적인 전환의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잘 맞았습니다."

-경영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원과 저 스스로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자기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작게는 건강, 시간, 가족, 태도 등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 개인의 완성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CEO는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깨어있고 생각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대표님에게 서울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동기나 동문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받은 도움도 크고요. 아쉬운 것은 저와 같이 산업계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 훌륭한 자질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태도와 열정 면에서 무엇인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인성 또는 정신적인 측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서울대만의 학풍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서울대인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떠올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리=김남주 기자

한국인 첫 국제표준화기구 수장에 올라
현대모비스 부임 후 연매출 50조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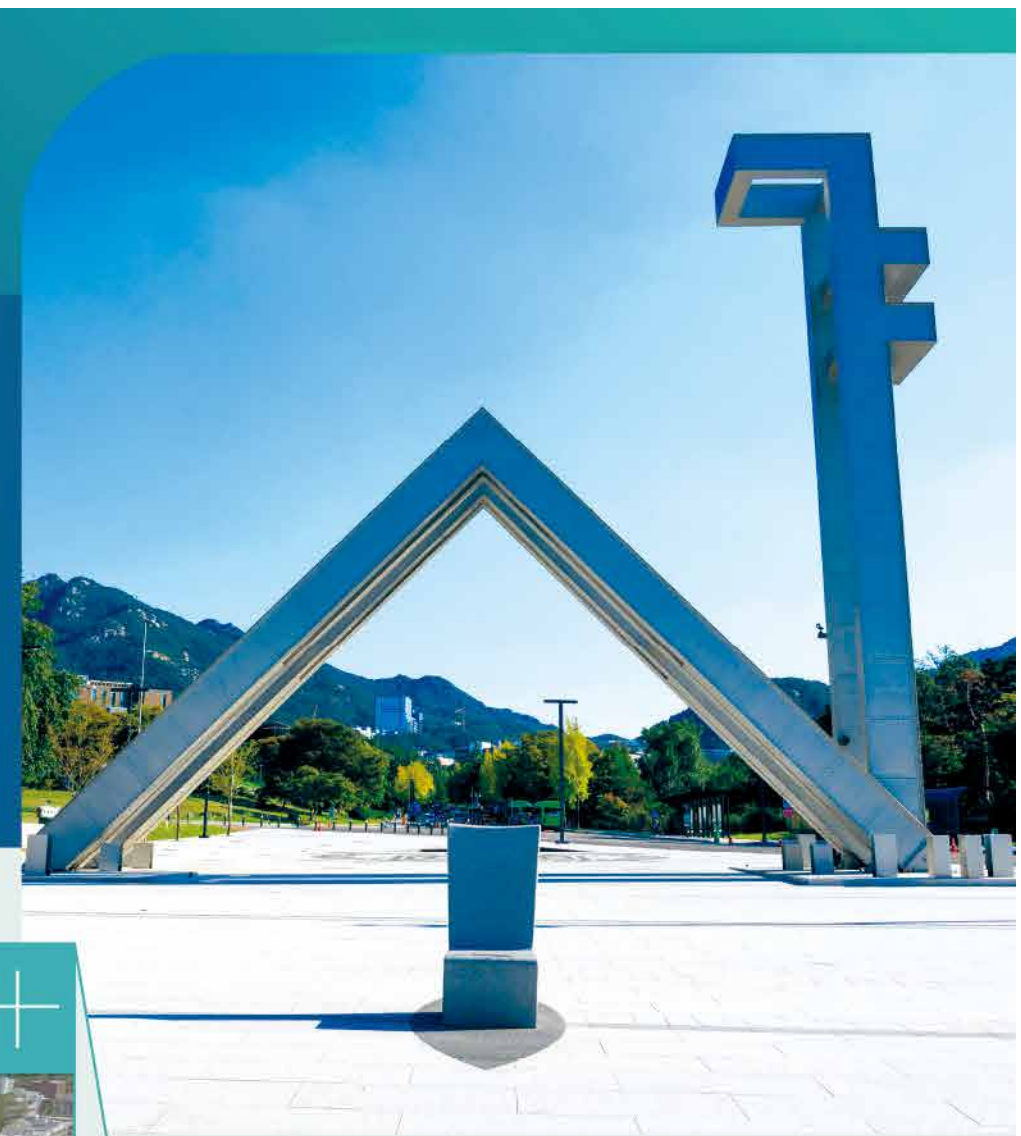
매일 새벽 30분 명상이 가장 소중한 시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서울대 학풍으로

조 동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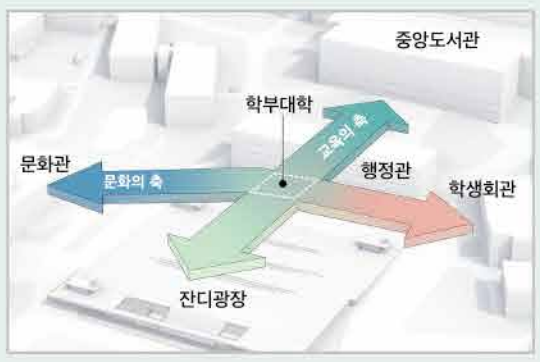
1961년 서울 태생. 영등포고 졸업 후 1980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부문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현대자동차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해 디젤 엔진 개발에 주력했다. 자동차 반도체 및 S/W 분야 사업을 수행했던 현대오트론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부사장 겸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현대모비스로 자리를 옮겨 R&D부문장, 전장BU장을 거쳐 2021년 3월 대표이사·사장에 선임됐다.

ISO :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 출범한 순수 민간 국제기구다.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했다. ISO라는 명칭은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또는 그 비슷한 정식 명칭을 줄인 것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ISO는 머릿글자를 딴 약칭이 아니고 그리스어의 ισος(로마자: isos, 이소스), 즉 '같다, 동일하다, 평등하다'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이다. 아이에스오가 아닌 아이소(또는 이소)라 부른다. 중앙사무국은 제네바에 있다. 163개국 표준 기관들이 참여한다.

서울대학교는 2025년 대학 종합화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혁신플랫폼'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서울대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SNU Commons 기금



현재 행정관이 자리한 관악캠퍼스의 중심인 공간을 학부 대학과 SNU Commons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소통,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우수한 역량과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SNU Computing Commons

모든 분야 성장에 바탕이 되는 미래 교육의 근간인 컴퓨팅 및 AI 기술은 보편적인 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전 학문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라납니다. AI 교육 허브의 구축으로 서울대 AI 교육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CREATE TOW
내일을 이루는 꿈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SMS MMS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1666-2930 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 Commons 기금 간단 참여신청서 [SNU Co-08]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 정기후원 매월 원
☐ 일시후원 일금 원

서울대학교발전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서울대학교의 대표모금기관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문의 : 발전재단(접수) Tel. 02-871-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2023년 8월 15일 제545호

비어가는 농촌에서

자연에 터 잡은 젊은 서울대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향했다. 녹음이 우거진 산이든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든 피서지에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냥 여기서 살까' 그러나 휴식을 위해 잠시 머무는 자연과 생활의 터전으로 눌러앉은 자연은 엄연히 다를 터.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귀농한 40대 이하 젊은 동문들의 농촌 생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농촌과 농업의 가능성을 자신하며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있었다.

농업의 가치 공유 없으면 농촌의 명맥 끊겨
문화·예술·교육 형태로 '농부의 멋' 알립니다

이지현
1987년생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석사 12-14
농업회사법인 뭐하농 대표
전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017년 충북 괴산군 감물면에 귀농
친환경 노지 채소, 표고버섯 등
문의 043-760-7121
홈페이지 mohanong.co.kr

돈 벌러 도시로 갔던 부모세대 청년들처럼
내 또래 청년들 농촌 와서 부자 됐으면

강윤영
1986년생
농경제사회학부 석사 13-15
농산물브랜드 농부로 대표
전 베트남 현지 유통회사 마케팅팀장
2023년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귀농
초당옥수수, 감자, 쌀 등
문의 055-352-9558
홈페이지 nongburo.com

농부의 멋 자랑하는 이지현 동문

이지현(대학원12-14) '뭐하농' 대표는 농부의 멋,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뭐든 하는 농부'다. 뭐하농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먹고 없어지는 농산물만으론 부족하며, 농업의 진가를 각인시키는 또 다른 활동이 절실하다는 깨달음에서 세운 농업회사법인. 2020년 1월 이지현 동문과 그의 남편을 비롯한 젊은 농업인 6명이 뜻을 모아 설립했다.

"농부는 사람과 자연을 동시에 살리는 가치 있고 멋진 일을 하는데, 직업으로서는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농민 스스로 농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농부로서 계속 살아가려면 농업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이 문화·예술·교육의 형태로 대중에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당장은 아니지만, 멀리 보면 농업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농업의 가치, 농부의 멋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이 동문은 귀농 후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농부로서 느끼는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되짚었다. 결과로서 생산물을 소비하거나 판매해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농사짓는 과정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흙에서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명력을 볼 때마다, 경이롭고 겸손해지며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고.

"행정안전부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맡아 귀농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봄이나 가을 경작기 때 두 달 간 살아보면서 농촌의 생활 주기를 직접 경험하고 이웃과 어울리며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생각해보도록 했어요. 동시에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니즈와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교집합을 찾게 했습니다. 20여 명의 참가자 중 18명이 정착을 택했죠."

청년들은 농촌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전직 승무원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됐고, 새에 관심이 많던 전직 영화감독은 앵무새 브리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선후배가 동업을 시작해 막걸리 양조장을 차렸고, 이곳에서 만나 커플이 된 남녀가 결혼에 골인하기도 했다. 대부분 이웃에 살게 되는 까닭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2021년 문을 연 '뭐하농하우스'는 저마다 생동하는 젊음의 에너지가 만나고 부딪치고 응축하고 버무려져 새롭게 발산되는 곳이다.

"뭐하농하우스는, 괴산의 제철 채소와 과일만 사용하는 디저트 카페로 일찍이 입소문을 탔지만, 더 정확히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플랫폼입니다. 자연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농부취향책방'은 지역사회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로컬디자인편집숍'은 컵·엽서·노트·스티커 등 문구 팬시용품과 함께 농작물을 담는 패키지를 만들죠. 세미나·포럼·강연 등 행사를 위해 마련된 '공유창작공간'은 인터넷과 개인 책상, 사물함도 갖춰 공유 오피스 역할을 합니다."

마주 보고 나란히 줄지어 선 기둥에 커다란 ㅅ자 지붕을 올린 형태의 뭐하농하우스는 돌과 흙이 바닥을 가로질러 들어올 뿐 아니라 그 위로 풀과 나무가 심어져 건물이라기보단 거대한 그늘막 같다. 유리로 3면을 에워싸 안팎으로 거침이 없는 개방감도 그렇다. 뭐하농하우스의 핵심은 '모두의 밭'. 뭐하농 단지 한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전체 1200평 부지 중 900평을 차지한다. 자연순환농법을 기반으로 한 정원형 농장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식재 디자인 모듈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모두의 밭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동반 작물을 심어 식물과 식물이 서로 돕게 하죠. 예를 들어 비트와 루꼴라를 함께 심으면 루꼴라의 매운 향기가 달콤한 비트 잎을 감춰줘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주고, 비트 잎의 망간과 철 성분이 거름 역할을 해 루꼴라가 잘 자라게 해 줍니다. 잎의 생장 시기와 속도, 뿌리의 크기가 달라 서로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도 않죠. 바질과 토마토를 같이 심으면 바질의 향이 토마토를 괴롭히는 벌레를 쫓고, 토마토는 바질 향에 지지 않으려고 당도를 높여요."

뭐하농은 도시에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지만, 자연과 함께 즐거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올해 '라이프 파머' 멤버십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35명이 가입해 지난 봄 경작기 때 허브 씨앗을 심고 수확도 해 갔다.

"주말농장 같은 경우 구획이 나뉘어 자기 구역 작물만 돌보는데 반해, 모두의 밭은 그런 제약 없이 함께 돌보고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전문 농사꾼이 멘토 역할을 해주고요. 시골살이의 즐거움에 눈 뜨게 해주는 '반딧불 야관회', '김장나눔 파티', '환영 파티', '연말 파티' 등 다채로운 라이프 프로그램도 마련했어요. 한 회원은 불면증 때문에 2년여 동안 약을 먹었는데, 희한하게 모두의 밭에서 일하고 간 날 저녁엔 바로 잠들더래요."

뭐하농하우스에서 건강한 한 끼를 즐기는 '계절의 식탁',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법을 배우는 '쿠킹클래스'를 괴산에 귀농한 유명 셰프와 함께 진행하며,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는 지역 유기 농산물을 활용해 제로웨이스트 비누도 만들면서, 라이프 브랜드 '엑스농(X_NONG)'을 런칭했다. 농업이 어디든 접목될 수 있다는 뜻에서 미지수 'X'에 '농업'을 붙여 지은 이름. 지난 4월엔 채소 구독서비스를 오픈, 상추 배추 같은 엽채류뿐 아니라 초당옥수수, 감자 등 괴산의 제철 채소와 건표고, 과일잼 등을 발송하고 있다.

그밖에 농부의 단상, 농부가 만난 농부, 농촌에서 사는 100가지 방법 등을 담은 뉴스레터 '인생경작'의 구독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농촌의 일상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전시공간이자 공간 프로젝트 '농작소'를 오는 9월 오픈한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는 물음에, 농업에 진심인 함께하는 직원들도 있고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협업도 많다며 "외부에서 보면 무척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저 재밌게 놀고 싶어서 저지르는 일들"이라고 답했다. 거의 잠을 안 자고 일한다는 건 반전.

"귀농을 준비할 때 열심히 알아봤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찾아봤고 표고버섯을 선택했죠. 2017년 표고버섯 특산지인 충북 괴산군 감물면에 둥지를 틀어 귀농 3년 만에 도시에서 벌던 수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버섯 농사는 거의 못 하고 뭐하농 사업에 올인하고 있죠. 벌이로 따지면 표고버섯이 훨씬 좋습니다.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나면 제게 돌아오는 몫은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추구하고 내세우는 가치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돈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생산하는 강윤영 동문

올해 2월 귀농한 새내기 농업인 강윤영(대학원13-15) 동문은 농산물 브랜드 '농부로'를 운영하는 농촌연구소 대표다. 농부로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길, 또 농촌이 잘 사는 길'이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강 동문이 경남 밀양에서 부모님과 함께 경작한 쌀·감자·초당옥수수 등을 취급한다.

모교 졸업 후 강윤영 동문은 베트남 현지의 대형 유통회사에서 마케팅팀장으로 일했었다. 일벌레였던 그는 휴가를 받으면 귀국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을 추스르면 베트남으로 돌아가 다시 격무에 시달렸다. 문득 나를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서울로, 베트남으로 타지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꿈이 됐죠. 제 아버지는 1991년 기계화영농사로 전국을 다니시며 경지정리 및 영농대행 사업을 하셨습니다. 2000년엔 트랙터용 쟁기 실용신안을 등록하실 정도로 국내 농업 기계 영농화에 노력하셨고, 2004년엔 호치민 농업기술전문대에서 기계화 영농교육을 가르치는 등 베트남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셨죠."

2006년 귀국한 강 동문의 부친은 쌀·감자·배추 등 10여 개 작물을 대상으로 기능성 농산물 개발에 돌입했다. 수차

1

미래 가치를 봤다

계절 따라 확 달라지는 다육식물 매력 빠져
재학시절 창농 도전, 1000평 농장 일궜죠

나현우
1991년생
소비자아동학부 10-20
곰도리다육 대표
재학생 때 사업 시작
2013년 경기 양평군 개군면에 귀농
500여 종의 다육식물 취급
문의 010-4396-8497
인스타그램 gomdory_succulent

쌀 생산 쌀가루 제조에 쌀 체험학습까지
농업 중심 6차 산업 구상하고 있어요

김요나
1980년생
자연대 석사 06-08 수의학 박사 08-15
친환경농업연합회영농조합법인 대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2018년 전남 함평군 신광면에 귀농
쌀, 밀 재배 학교·병원 등 납품
문의 061-322-5420
이메일 okito99@naver.com

례 현장검증을 거쳐 2019년 나노 유기 게르마늄 및 나노 유기 셀레늄을 동시에 함유한 기능성 작물 재배에 성공했다. 2021년 국내 특허를 받았고 2022년엔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 일본 등지에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맛, 안전뿐 아니라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메디푸드의 시대, K-농산물의 시대를 열고자 온가족이 힘을 모은다. 강 동문이 농부로의 농산물을 '명품'이라고 일컫는 이유.

"농부로의 경작물은 45년 경력의 전문 농업인이 17년 넘게 현장 실험과 검증을 지속해 획득한 특허 농법을 적용해 재배됩니다. 인체에 부족해지기 쉬운 필수 미네랄과 다양한 약리작용을 하는 유기 게르마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해줘요. 나노 크기(머리카락 굵기 10만분의 1)의 유기 셀레늄과 유기 게르마늄을 농작물 옆면에 살포함으로써 해당 함유량을 조절할 수도 있죠. 현미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백미를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현미·5분도미·7분도미·백미 등 농부로 쌀은 맞춤 도정도 가능하다. 딸기, 포도보다 달콤한 초당옥수수도 인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함량이 많아 가볍게 즐기는 간식으로 좋다. 일반 옥수수와 달리 물에 오래 닿으면 당분이 빠지니 물에 직접 넣어 삶는 것보단 찜기를 이용하거나 지퍼백 등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익혀 먹는 게 더 맛있다. 껍질을 벗겨 흐르는 물에 씻어 생으로 먹을 수도, 냉동고에 넣어 얼렸다가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게 먹을 수도 있다.

"산업화 시대, 지금은 기성세대가 된 농촌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났습니다. 저는 제 또래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대를 꿈꿉니다. 우리 농촌의 고품질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져 그에 합당한 값을 받고 팔려 열심히 농사지은 농부들이 부자로 사는 시대를 꿈꿉니다. 청년들이 그런 꿈을 품고 농촌으로 몰려오길 바라고요. 농촌엔 없는 게 많지만, 있는 것도 많습니다. 계절을 벗 삼아 철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과 옆 동네에서 재배되는 또 다른 품종의 과실들, 길 가다 마주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도시와 다를 뿐 누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 동문은 귀농·귀촌에 관한 책과, 지역 작가와 공동 제작하는 웹툰 등 다양한 농촌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유튜브로 소통하는 나현우 동문

나현우(소비자아동10-20) '곰도리다육' 대표는 모교에 재학 중인 2013년 다육식물 사업에 뛰어들었다. 매출은 해마다 유동적이지만 다른 사업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올해는 3억3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 5개 동 1000평 규모 농장에서 약 500여 종의 다육식물을 재배한다.

다육식물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파리나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식물을 말한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부터 국내에 자생하는 품종도 있고, 수입되거나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도 있다. 2000년대부터 관상식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해 2015년을 지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육식물이 다양해졌다. 우리가 잘 아는 선인장도 다육식물의 일종. 나현우 동문은 어머니가 취미로 다육식물을 기르는 것을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었다.

"그때그때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을 좋아해 '한번 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사무를 보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일이 더 적성에 맞기도 했고요. 금전적 보상도 나쁘지 않아 마음을 굳혔죠. 사업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은 무거웠지만, 스케줄 조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나 동문이 꼽는 다육식물의 매력은 계절에 따른 극적인 변화. 특히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계절엔 더욱 선명한 색감과 통통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관리가 까다롭지 않아 단순한 생육조건만 이해하고 제공하면 누구나 쉽게 다육식물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피가 커지는 관엽과 달리 다육식물은 나이가 들수록 외려 작아지면서 색감이 더 선명해져 10년 이상 무난히 키울 수 있다.

나 동문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몇 만원씩 받는 것보단 그저 저렴한 것을 골라 일단 키워보면서 안목을 높여가길 권했다. 예전보다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다육식물은 시장 규모가 작아 몇몇 유통망에서 짜고 가격을 교란,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기도 한다고.

"농업 종사자를 좀 낮춰 보는 사회적 시선은 잘 알지만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시장을 어지럽히는 몇몇 동종업계 종사자의 행태에 대해선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육식물은 작은 규모로도 농장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초기 투자비용 대비 물건 단가가 높다 보니 한탕 벌고 빠지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업자도 적지 않죠. 유튜브 채널을 열어 다육식물과 다육식물 시장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해요."

나 동문은 다육식물을 테마로 한 '가드닝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취미농과 직업농이 한 곳에서 만나 교류하는 일종의 원예상품 아울렛. 농사에 관심 있는 도시 사람에겐 농촌 체험이나 작물 혹은 농경 장비를 제공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관련 교육도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농삿일에 드론 활용 김요나 동문

김요나(대학원06-08) 친환경농업연합회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모교 박사 출신 농사꾼이다. 2008년 자연대 석사, 2015년 수의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2018년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고 생업에 종사하기 힘들어지면서 귀농했다. 직전까지 전북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일했던 김요나 동문은 위로 형이 있지만, 해외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까닭에 부모님을 모시게 됐다. 2013년 결혼해 슬하에 2녀 1남을 둔 가장이다.

"전 직장이 아버지 계신 본가와 멀지 않았어요. 저도 가정이 있기에 거리와 별개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비전과 아이들 장래, 부모님 건강, 경제적인 문제 등 많은 것이 떠올랐죠. 부모님께서 힘들게 농사지어 긴 시간 뒷바라지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좀 더 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5년이 넘었지만, 농사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는 김 동문. 그래도 웬만한 농기계는 다 다룰 줄 알게 됐고, 한 해 농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연계하는, 능동적 수익 창출 모델을 구상 중이다.

김 동문이 생산한 쌀은 주로 함평군 내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 수가 줄어 소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 광주, 부산 등 농경지가 드문 인근 도시의 학교에 진출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물론 부산물인 쌀가루를 활용해 거래처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가까운 지역에 사는 동료나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놀러 옵니다. 함께 일했던 시절 이야기와 육아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꾸준히 오가는 친구들은 회색빛에 익숙한 도시의 아이들에게 시골 생활의 다채로운 즐거움과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다며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이에 착안해 농촌의 즐거움을 체험학습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접목해보려고 해요. 1차로 쌀을 생산하고, 2차로 제빵용 쌀가루를 만들고, 3차로 체험학습을 서비스하는 6차 산업인 거죠."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 약제만 사용해 유기농 쌀과 밀을 생산하는 김요나 동문. 환경을 위하는 일은 대개 손이 많이 가고, 생산비용도 좀 더 들어가지만, 오리농법, 쌀겨 농법 등 친환경 농업을 개척해 지역사회에 전파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농산물만 재배하겠다고 말했다. 인력충원과 공장 리모델링을 마치면 온라인 커머스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이웃 영농인들은 대부분 제 아버지뻘 되기 때문에 40대 초반인 저를 어리게만 봅니다. 아직 신입 딱지도 안 떼줘요. 수의학박사 타이틀을 명함에 넣었더니 나름 효과가 있더군요(웃음). 지도교수셨던 성제경(수의학86-90) 교수님께서 매년 먼저 안부 전화를 주십니다. 올 초에도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연락 달라고 하셨죠. 모교에 재학하는 근 10년 동안 잘해주셨는데 도리를 못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김 동문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궁극적인 자녀 교육 목표라고 말했다. "많은 걸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싶은데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자연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하다고 전했다.

나경태 기자

1. 노을 아래 황금물결을 일으키는 강윤영 동문과 부모님의 경작지. 2. 드론으로 친환경약제를 살포하는 김요나 동문. 3. 나현우 동문이 재배하는 다육식물. 4. 이지현 동문의 뭐하농하우스 내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교수 등 36명 정년퇴임

이달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교수 36명이 정년·명예퇴임을 맞이한다. 모교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그 업적과 약력을 짧게나마 지면에 담았다. 정리=박수진 기자

조은수 (약학82졸) 철학과

모교 약학과 졸업 후 철학과에서 석사학위, 미국 버클리대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불교철학을 연구해왔다. 미시간대 조교수, 모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초대 소장, 여교수회장,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장을 지냈으며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저서로 공동 영역한 '직지심경' 등이 있다.

정천기 (의학77-83) 뇌인지과학과

모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수종양, 뇌전증 등을 진료하면서 자연대 뇌인지과학과에서 인간 뇌의 구조와 기능 연구 및 강의를 해왔다. 유럽신경외과학회 최우수 연구상을 받았다. 대한척추종양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최근 영문 척수종양 교과서를 냈다. K-MOOC에서 '인간 뇌의 이해' 강좌를 볼 수 있다.

김지환 (항공공학78-82)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 응용역학 연구실을 이끌며 항공기 및 우주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유연구조물의 과도분석 등을 연구하고 대학원 협동과정 우주시스템전공에서 강의했다. 우주발사체 및 미사일의 동적 안정성 해석, 초음속 영역에서 비행기 외부 표면의 패널에서 발생하는 플러터(flutter) 해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조동일 (카네기멜론대77-80) 전기·정보공학부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및 제어 기반기술, 로봇·회로·나노·바이오 융복합 연구를 수행해왔다. 생체모방 로봇, 산업용 로봇 기술 등을 개발해오며 로봇 관련 대형 국책사업들의 총괄책임을 맡았다. 미국 카네기멜론대 졸업 후 MIT에서 기계공학(제어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고 1993년 모교에 부임했다. 국제자동제어연맹 회장이다.

정철영 (농업교육77-81) 농산업교육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 분야는 국제직업교육, 진로교육 및 직업심리, 산학협동교육 분야 등이다. 교육부 프로젝트로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 강화와 교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다수의 연구를 했다. 모교 학생처장, 농생대 학장, 한국진로교육학회장을 지냈다.

기무라 준페이 (木村順平·니혼대80졸) 수의학과

니혼대 농수의학부 졸업 후 도쿄농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니혼대 수의학과 교수로 야생동물 해부 구조와 진화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2007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 포유동물의 기초형태해부학 연구를 해왔다. 국내 야생포유류의 골격표본수집에 전념하며 동아시아 너구리의 형태적 분류를 확립하기도 했다.

황영일 (의학83졸) 의학과

모교 해부학교실에서 해부학을 기반으로 면역학, 신경줄기세포, 체질인류학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구를 펼쳤다. 의학교육연수원에서는 의학교육 워크숍을 개발하고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연수를 진행했다. 이 공로로 모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받았다. 저서로 '7일간의 신경해부학실습'이 있다.

백롱민 (의학77-84) 의학과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안면기형, 희귀 두개 안면질환 전문으로 1989년 세민얼굴돕기회를 설립하고 베트남 등 국내외에서 얼굴기형 어린이 5000여 명에게 무료 진료와 수술을 펼쳤다. 장기려의도상, 오드리 헵번 인도주의상, 적십자박애장 은상을 받았다. 분당 모교병원장, 대한성형외과학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장 등을 지냈다.

최봉규 (연세대80졸) 치의과학과

2003년 모교에 부임해 치의학대학원 구강미생물학교실을 이끌어 왔다. 치주병원균의 병인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 세균이 치주조직의 염증반응을 증폭하고 만성 염증상태를 나타내는 과정을 밝히는 등 다수의 성과를 냈다. 청산학술상을 받았다. 연세대 생화학과 졸업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생물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수창 (국사78-82) 국사학과

17세기 붕당정치, 18세기 국가운영, 19세기 세도정치 등 한국근세사와 조선정치사를 비롯해 평안도 등 서북지역 사회발전을 연구해 왔다. 문학 작품에 담긴 역사적 상황에도 관심을 뒀다. 저서로 '춘향전, 역사학자의 토론과 해석',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번역서 '서수일기' 등을 냈다. 모교 역사연구소장, 한국역사연구회장을 지냈다.

김병도 (경영78-82) 경영학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분야의 대가로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해 다양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네기멜론대 교수로 재직하다 1996년 모교에 부임했다. 저서로 미국에서 발간한 'Database Marketing'(공저), '경영학 두뇌' 등이 있다. 경영대학장을 지냈다.

설승기 (전기공학76-80) 전기정보공학부

전력전자연구실에서 유도전동기, 전력 변환기 설계 및 제어,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제어 등을 연구해왔다. 국내외 기업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가 산업 현장에 널리 활용됐다. 전기차, 전기추진선에도 관심을 뒀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석학회원이다. IEEE 기술분야상을 받았다.

차국헌 (화학공학77-81) 화학생물공학부

고분자물리 및 고분자 박막 분야에서 수백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약 100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독일 마인츠대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 리서치 어워드'를 받았다.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물리학회 석학회원이며 모교 공대 학장을 지냈다.

이희재 (원예78-82) 농림생물자원학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원예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농무부에서 식물생리를 연구했다. 2000년 모교에 부임, 과수원예학 연구에 매진했다. 농생대 창업보육센터장으로서 농생명 분야 창업을 진작시키고,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으로 평창캠퍼스 활성화에도 힘썼다.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등을 받았다.

이봉진 (약학77-81) 제약학과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한 신약개발 연구에 집중해왔다.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출원했으며, 신약개발 벤처기업 '마스터메디텍'을 설립해 연구 결과의 실용화에도 힘썼다. 모교 약학대학장을 3연임하며 신약개발연구센터와 가산약학역사관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일본 오사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명철 (의학77-83) 의학과

모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염과 관절질환, 무릎 스포츠 손상 등을 진료해왔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연골재생, 인대손상과 관절염 치료, 무릎관절 치환술 등을 연구했다.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장, 대한슬관절학회장을 지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회장이며, 9월부터 SNU서울병원에서 진료한다.

김혜선 (이화여대81졸) 의과학과

2000년 모교에 부임, 분자신경약리 연구실을 이끌며 알츠하이머병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신경계 질환의 병인 기전을 찾고 치료 타깃을 발굴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화여대 약대 졸업 후 약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 의학과에서 약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다.

박정훈 (법학77-81) 법학과

사법시험(25회) 합격 후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모교 대학원에 입학,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9년 모교에 부임해 행정법과 법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왔다.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냈으며, 저서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등이 있다.

권석만 (심리77-81)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 전문가로 정서장애와 성격장애의 요인 및 치료법, 행복의 과학인 긍정심리학 등을 연구해왔다. 인기 교양강좌인 '인간관계의 심리학'을 개설했고, 한국사회를 반영한 전공교육을 위해 직접 다수의 대학교재를 쓴 공로로 모교 교육상을 받았다. 학내 상담 활동과 대학생활문화원장 등 보직 수행을 통해 재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박철순 (경제78-82) 경영학과

전략 경영과 국제경영 전문가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런던경영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내다 1997년 모교에 부임했다. 경영대에 학술동아리 N-CEO를 만들어 유수의 경영자를 육성했다. 강의록을 엮은 책 '전략과 경영자'를 냈다. 모교 경영대학장, 신한은행 이사회 의장 등을 지냈다.

이광복 (토론토대78-82) 전기정보공학부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전자공학 학사와 석사학위, 맥매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6년 모교에 부임했다. 와이브로 시스템과 초고속 데이터 통신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한국공학상(전기·전자분야)을 받았고, 4G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응용부문)을 수상했다. IEEE 석학회원이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홍성필 (산업공학78-82) 산업공학과

경영과학·최적화 연구실을 이끌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경영과학의 국내 정착과 발전을 이끌었다. 모교 석사과정에서 산업공학과 수리계획을 전공하고 UC버클리에서 조합최적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경영과학', '선형계획법' 등이 있다. 현우곽수일경영과학학술상을 수상했다.

권오현 (독어교육76-81) 독어교육과

문학교수법, 상호문화이론을 연구하는 한편 대학입시 전문가로서 모교 사범대 교육연수원장을 지내며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연구하고 교육했다. 입학본부장 재임 당시 '선한 인재'라는 인재상에 맞춰 학생부종합전형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밖에 국가 교육과정 개편 추진위원,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장 등을 지냈다.

제니퍼 라모어 (Jennifer Larmore·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컬리지) 성악과

메조소프라노로 1986년 국제 무대에 데뷔,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하며 온화한 음성과 화려한 콜로라투라 기교로 사랑받았다. 애틀란타 올림픽 폐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렀으며, 그래모폰상, 그래미 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모교엔 2021년 부임했다. 네이버TV '서울대 음대 레슨노트'에서 레슨 영상을 볼 수 있다.

신민섭 (가정관리78-82) 의학과

모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신경심리검사, ADHD 인지행동치료, 강박장애 인지행동치료와 심리진단검사 등을 맡아왔다. 정신질환 치료를 돕는 프로그램과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국자폐학회장,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장, 한국임상심리학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여덟살 심리학',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등이 있다.

정영록 (경제77-81) 국제학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관, 경제공사를 지낸 중국통 경제학자로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해왔다.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중국학회 창립회장을 지냈다. 2021년 저서 '핏팅 코리아'에서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철수 (법학78-82) 법학과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부 정책자문위원장,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등을 맡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모교 평의원회 의장, 기획처장, 교수협의회 부회장,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노동법학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장을 역임했다. 올해 2월 노동법 관련 최신 논의와 판례를 반영한 저서 '노동법'을 펴냈다.

계승혁 (수학75-79) 수리과학부

해석학 연구자로 전공자들이 널리 보는 '해석개론', '다변수함수론', '실해석학' 한국어 교재를 공동 집필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어려운 과목의 이해를 도와 자연대 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 매주 모교에서 열리는 '작용소대수와 이론 세미나'를 주관해왔으며 홈페이지에 '인문사회계를 위한 수학', '해석개론' 등 강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김영규 (공업화학76-80) 화학생물공학부

정밀화학 전공으로 화학생물합성실험, 유기정밀화학, 생유기화학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 학부에서 ABEEK(공학교육인증)을 담당하며 모교가 예비인증을 받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학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토론식 강의와 영어 강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모교 교육상을 받았다.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덕균 (전자공학77-81) 전기·정보공학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디지털 비디오 전송장치 'DVI'와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HDMI'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 벤처기업을 설립, 나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반도체 회로설계 우수 연구자에게 주는 IEEE의 2024년 '도널드 O. 페더슨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모교 석좌교수다.

송용상 (의학77-83) 농생명공학부

모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부인암을 진료하며 농생명과학, 의학, 수의학, 공학이 결합된 대학원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에서 부인과종양학 연구실을 이끌었다. 저서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를 내며 식생활·운동 등 건강관리 습관을 알리는 데도 힘썼다. 모교 암연구소장, 연구부처장, 대한암예방학회장을 지냈다. 보령암학술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황금택 (식품공학75-79) 식품영양학과

식품신소재 전문가로서 식품에서 유래한 기능성 신소재 탐색과 분석·활용, 식품 분석 및 식품 품질 향상 방법, 식품 가공 공정 개선책 등을 연구하며 다수의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 코넬대에서 식품과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생활과학대학장을 지냈다. 저서로 '식품가공저장학'(공저) 등이 있다.

오명돈 (의학77-83) 의학과

에이즈 연구의 권위자이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바이러스질환 전문가로서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앞장섰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WHO 감염병위험관리 자문위원직 등을 지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다.

이동순 (의학78-82) 의학과

1998년 모교 의대에 부임,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교수를 지냈다. 분자세포유전학, 혈액학 전문으로 모교 의학연구원 유전체의학연구소에 몸담으며 다수의 종양유전학 분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다. 대한진단혈액학회장, 모교 의대 출신 여성 의사 모임인 함춘여자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허성주 (치의학77-83) 치의학과

모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에서 치과용 임플란트 표면 처리, 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임플란트 동물 실험 및 임상 시험 등을 연구해왔다. 모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을 거쳐 병원장을 역임했다. 공직치과의사회장,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장을 지냈다.

김주곤 (농화학77-81) 국제농업기술학과

작물생명공학연구실을 이끌며 작물 분자 생명공학, 작물의 가뭄저항성 등에 관심을 뒀다. 카이스트 생물공학과에서 석사학위, 미국 코넬대에서 식물분자생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부임 전 명지대 교수로 재임하며 모교, 코넬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추위와 가뭄에 강한 슈퍼 벼를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컴백, 문리대 밴드 '엑스타스'

7월 13일 마포구 상상마당에서 문리대 밴드 '엑스타스'의 공연이 열렸다.

'더 영 원스' 등 10여 곡 연주
200여 관객 홍대 공연장 메워

7월 13일 마포구 홍대 거리의 KT&G 상상마당 지하 공연장. 주로 젊은 인디가수와 락밴드 공연이 열리던 곳이 백발 희끗한 70대 관객으로 가득 찼다. 모교 문리대 밴드 '엑스타스(EXTAS)'의 공연 '엑스타스 이즈 백 어게인'을 보기 위해 모여든 동문들이었다. 폭우가 내리는 평일 저녁이었지만 준비한 170여 석이 모자라 추가 좌석까지 설치됐다.

엑스타스는 1965년 12월 문리대 동문을 주축으로 결성돼 1970년까지 활동한 밴드다. 1966년 경희루에서 열린 제1회 재일교포학생 모국 방문 환영회에 정부 초청을 받아 첫 공식 연주를 시작했고, 매년 여러 대학 축제에 초청됐다. TV에도 수차례 출연했다. 매년 신입 단원을 받아 8대까지 이어갔으나 모교의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수십년이 지나 직장에서 은퇴하고, 해외에 거주하다 돌아온 동문들이 하나둘씩 모여 엑스타스를 재결성했다. 2018년 창단 53년 만에 연 공연이 '엑스타스 이즈 백'.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몇 해를 쉬었지만, 1년여 준비 끝에 연 이번 공연으로 건재함을 알렸다. 엑스타스 1기 최인용(물리65-73) 동문이 보컬을 맡고, 리드기타로 3기 강문기(식물68-76), 리듬기타로 3기 김홍장(전기공학68입), 드럼으로 3기 이성관(건축68-72), 베이스기타로 4기 정낙찬(서양사69-73) 동문이 참여했다. '강스 밴드'로 활동하면서 엑스타스와 연습을 함께 한 강미규(작곡78-82) 동문이 건반을 맡았다.

청바지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더 벤처스', 'CCR' 등 일렉트릭 기타 밴드의 곡과 닐 다이아몬드의 '스위트 캐롤라인', 클리프 리차드의 '더 영 원스' 등 1960~1970년대 유행한 팝송 10여 곡을 연주하는 모습에 관객은 환호했다. 마치 어제 듣던 노래처럼 따라 부르고, 고개를 흔들었다. 베이스 정낙찬 동문의 초대로 왔다는 권중배(경제69-73) 동문은 "학교 다닐 땐 한 번도 연주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친구가 앞에서 공연하니까 더 즐겁다"고 말했다.

본지 '나의 취미'에 소개됐던 강문기 동문은 리드기타지만 몇몇 곡에서 마이크를 잡고 보컬로 나섰다. 강동문은 "1년 넘게 준비했고, 좋은 공연장을 찾으러 발품도 팔았는데 많은 사람이 와줘서 기뻤다"며 "아직 다음 공연 계획은 없지만, 이번 공연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엑스타스는 언제든지 모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신임 직능지부 회장 인터뷰

"회원 DB 구축해 조직 정비 먼저"

관악언론인회
박 민 (정치82-86)
문화일보 논설위원

"언론계는 위기 상황입니다. 1인 미디어의 등장, 가짜뉴스 범람, 이념적·정치적 양극화 등으로 거짓과 주장이 진실과 사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에 대한 신뢰의 추락으로 이어져 언론의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관악언론인회는 서울대인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에 따라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 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5월 23일 관악언론인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30여 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중진답게 오늘날 언론이 처한 위기와 서울대인으로서 짊어진 책무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취임 두 달 동안 간사단 대부분을 교체, 13명 중 7명을 1990년대 학번으로 선임했다. 기자로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각 언론사의 대표격이란 점에서 소장파인 셈이다. 7월 27일 서울시 중구 문화일보에서 박 민 회장을 만났다.

"최근 10년간 서울대 출신 언론계 지망생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인구절벽 수준이죠. 과거엔 압도적 다수였어요. 문화일보만 해도 사장·편집국장·주필·정치부장이 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일 때가 있었습니다. 타 대학 출신 기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았죠. 그땐 모교 출신 언론인들이 모임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자제할 만했어요. 관악언론인회가 2003년에야 출범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외려 후배들이 언론계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선배들의 역할이 필요해졌습니다."

모교 출신 언론인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박 회장은 사회적 소명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풍조에서 찾았다. 기자직의 처우가 다른 유망 분야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소위 웰빙이나 워라밸하고도 거리가 멀다는 것. 관악언론인회는 윤석민(신문81-85) 모교 언론정보학과장과 협력해 저널리즘 스쿨을 개설, 재학생 때부터 후배들이 실무 교육과 더불어 언론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설립 과정에선 물론 설립 이후에도 관악언론인회 임원이 강단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

"여느 동창회와 달리 관악언론인회는 공익적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신 학과나 단대는 달라도 같은 기자로 뭉친 조직이죠.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속에서 소속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현실에서, 진영을 넘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언론 위기의 극복, 나아가 건전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큽니다. 마땅히 관악언론인회가 맨 앞으로 나서야 할 일이죠."

모임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회원 상호 간 소통과 친목이 기본. 박 회장은 관훈클럽 총무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모교 출신 언론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열린 관악경제인회 조찬포럼도 그중 하나. 이날 포럼에 박 민 회장을 비롯해 이강덕(정치82-88), 강경희(외교84-88), 이우탁(동양사84-88), 김영희(고고미술사학88-92), 홍지영(불문89-93), 김승련(국제경제87-92) 동문 등 모교 출신 언론인들이 관악경제인회 부회장으로서 참석했다. 박 회장은 "향후 기업계 외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를 연사로 초빙할 때 관악언론인회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정비를 최우선으로 모교 출신 언론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총동창회, 관악경제인회, 모교 보직교수들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요. 관악언론인회에 주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회원이 많은 만큼, 정파를 넘어, 소통을 거듭해 바람직한 사회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태 기자

농공동창회

5월 18일 열린 농공동창회 '대선배의 날' 참가 동문들이 마곡 서울식물원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마곡 서울식물원 나들이

농공동창회(회장 김성민)가 5월 18일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에서 '2023 대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대면 모임이 연달아 취소된 이후 첫 행사다. 원로 동문 23명이 참가해 전문해설사 2명과 함께 다채로운 식물들을 관람했다. 관람 후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친목을 다졌다. 김주창(농공56-60) 동문은 서울식물원 내 마곡문화관(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에 대한 귀한 자료를 준비해 와 좀 더 유익한 관람이 될 수 있게 도왔다.

광고 협찬 부탁드립니다

총동창신문 광고 대행 외주 업체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동창회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주합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은 모교 출신 중견 언론인 25명의 자문을 받아, 매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협찬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기업 홍보 및 상품 광고를 위해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남주 편집장
(02-886-2219, news@snua.or.kr)

구분	규격	광고료
전면	299mm×432mm	600만원 (맨 뒷면)
		500만원 (내지)
절반	299mm×216mm	300만원
1/4면	299mm×125mm (가로형)	200만원
	175mm×210mm (세로형)	

임학동문회

옛 수원캠퍼스로 봄 소풍

4월 29일 열린 임학동문회 봄소풍 겸 홈커밍데이에 동문과 가족 40여 명이 참가했다.

임학동문회(회장 조재구)가 4월 29일 모교 수원수목원과 옛 수원캠퍼스에서 봄소풍 겸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954학번 한관석 선배부터 2018학번 후배까지 동문 및 동문 가족 40여 명이 참가했다.

조재구(임학83-90) 회장은 "비가 오는 중에도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동문들과 가족분들이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요한(산림자원95-99), 한 희(산림과학00-07), 최혜영(조경·지역시스템공학04-08) 등 모교 신임 교수들이 동문 선배에게 인사했다. 이날 참가 동문들은 숲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봄비 맞은 수원수목원을 산책했고, 수원수목원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나선 최근 창업지원센터, 경기 상상캠퍼스로 운영되는 모교 수원캠퍼스의 곳곳을 살펴보고 학창 시절 추억을 나눴다. 조재구 회장이 기념품으로 막걸리와 보드카를 준비해 참가 동문들에게 선물했다.

ACAD동창회

우크라이나 대사 초청 국정포럼

7월 7일 열린 ACAD동창회 국정포럼에서 참석 동문 60여 명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정책과정(ACAD)동창회(회장 이종철)가 7월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에서 국정포럼을 개최했다. 이종철(86기) 회장, 강천수(86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가 연단에 섰다.

이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준 동문들과 초청 강연을 승낙해준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의 전망 등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동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 넓은 의미'란 주제의 강연에서 "세계의 친우크라이나 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더 많은 지원은 더 빠른 승리와 평화를 의미한다.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가는 학생이 없어요, LnL 6개월

기숙형대학 운영 반년 돌아보니
생활규칙 입주생이 직접 정하고
예체능·상담 등 비교과활동 활발
신입생 외 학년도 입주 문의 많아

모교 기숙형 대학 LnL 입주생들이 건물 로비에 모여 토론 활동을 하는 모습. 리모델링을 통해 2학기엔 더 많은 공용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2학기 LnL에 남는 자리 있나요?' 모교 기숙형 대학(이하 RC) LnL 유불란(정치97-04)·김경미(지구과학교육06-10) 전담교수가 요즘 자주 받는 메일이다. 현재 LnL 입주생은 신입생 248명을 포함해 2학년 이상 학생 26명과 대학원생 13명. 신입생뿐 아니라 다른 학년도 LnL 입주 문의가 많다고 했다.

올해 초 도입된 LnL이 1년의 시범 운영 중 절반을 마쳤다. 입주생들은 기숙사(관악학생생활관) 906동에 거주하며 LnL의 뜻 'Living and Learning' 그대로 생활과 교육이 통합된 시간을 보냈다. 기숙형 대학을 통한 전인교육과 공동체 교육은 모교의 숙원사업이었다.

신입생의 10% 규모로 시작했지만 큰 관심을 모았다. 올초 신입생 입주자 200여 명을 선발하는 데 1000여 명이 지원, 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되 남녀 비율과 단과대학 비율을 맞추고, 13개 반에 고르게 배분했다. 신입생 20여 명과 재학생 멘토 2명, 조교 역할인 대학원생 프록터 1명을 한 반으로 묶었다.

고교 시절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보낸 신입생들이 '잘 지낼까' 우려도 없지 않았다. LnL에서 전해온 얘기는 고무적이다. 우선 이탈자가 없다. 반수를 위해 그만둔 학생을 제외하면, LnL에 불만족해 나간 경우가 없다는 설명. 7월 28일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임시 퇴거한 906동에서 만난 유불란·김경미 전담교수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도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LnL 전담교수로 채용된 두 동문은 입주생 교육과 지도, 상담 등 실무를 맡고 있다.

1학기 동안 LnL의 입주생들은 2학점짜리 교과 프로그램 '관악모둠강좌: 공동체'를 들었다. 몬테 카심 아키타국제대학 총장,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 등 명사의 강연과 토론회가 격주로 열렸다. 비교과 프로그램도 풍성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호신술, 발레, 테니스 강습과 집단 상담, 작가를 초청한 북토크 등이 진행됐다.

여기까진 여타 대학 RC와 비슷하지만, 서울대 RC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RC를 도입하며 모교는 "진정한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기조를 세웠다. 규율과 벌점 위주의 하향식 관리가 아닌 학생 주도의 상향식 자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진이 주문한 것은 한 가지였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입주생들은 몇 달간 설문조사와 토론을 거듭하며 의견을 모았다. 치열한 조율 끝에 어느날 전원이 한 공간에 모였다. 일명 '대토론의 밤'. LnL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정들이 이날 탄생했다. 운영진은 간단한 피드백만 줬을 뿐이다. "대토론회 주요 논점 중 하나가 공용 세탁실 사용이었습니다. 많은 기숙사에서 남녀 층을 나누고 출입 시간도 정하지만 LnL은 같은 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용 세탁실은 요일이나 날짜를 나눠 쓰게 해야 하나, 운영진은 걱정했죠. 정작 학생들은 '규칙은 필요 없다.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남의 속옷에 손대는 게 불편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중하고 수렴하면서요.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유불란)

입주생 전체가 모인 단톡방에는 '빨래 빨리 가져가 주세요', '밤늦게 대화 자제해 주세요' 같은 의견이 수시로 제기되지만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된다. 처음엔 '이거 해도 돼요' 허락을 구하던 학생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해보겠다'며 능동적으로 바뀌어갔다.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려는 접근 방식을 버렸더니, 학생들 스스로 충분히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바빠도 입주생들은 수요일 밤만은 LnL 활동을 위해 빼둔다. 김경미 전담교수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수시로 반끼리 한강이며 야구장으로 놀러가는 일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이 안 될 정도"라며 "저도 기숙사에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옆방에 누가 사는지 몰랐는데, LnL에선 시작부터 섞이고 부딪히며 공동체 만들기를 맛보니까 이젠 학생들이 '반을 섞어달라'는 등 확장을 원한다"고 했다. "한 반은 어제 부동산에 다녀왔어요. 내년에 LnL을 나가면 건물을 빌려서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요. 저희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학교와 논의 했죠. 학생이라 잘 안 믿어준다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더니, 부동산 다섯 곳에 들러 건물까지 보고 오더라고요. 다른 교수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게 된다고요?'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세요(웃음)." 기숙사를 얻으려고 신청했다가, 졸업할 때까지 살고 싶어졌다는 학생도 적지 않다.

멘토와 조교로 입주한 재학생들도 '24시간 돌봄'이라 할 만큼 헌신적이다. 박찬무(경영13-20·경영학과 석사과정) 씨는 "학교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LnL 프록터에 지원했고, 한 학기 동안 '학생 주도로 만들어나가는 LnL'을 추구하며 동료들과 열심히 고민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신규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동기부여가 됐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운영진과 대학원생 조교들은 방학 중에도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

모교는 2026년까지 기숙사 여러 동을 재건축해 신입생 전원 대상으로 LnL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906동만 개보수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8층 건물로 한 층에 두 반씩 기존 2인실을 주거 공간으로 쓰고, 일부 방의 침대와 가구를 들어내 소모임 공간으로 쓴다. 아쉬운 것은 공용 공간. 200여 입주생 전체가 모이려면 강당이 있는 건물로 이동해야 했고, 20여 명 모일 곳도 없어 로비에 책걸상을 놓았다. 방학 동안 여러 개의 방을 트고 이동식 벽을 설치하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요리와 베이킹을 할 수 있는 공유 주방도 곧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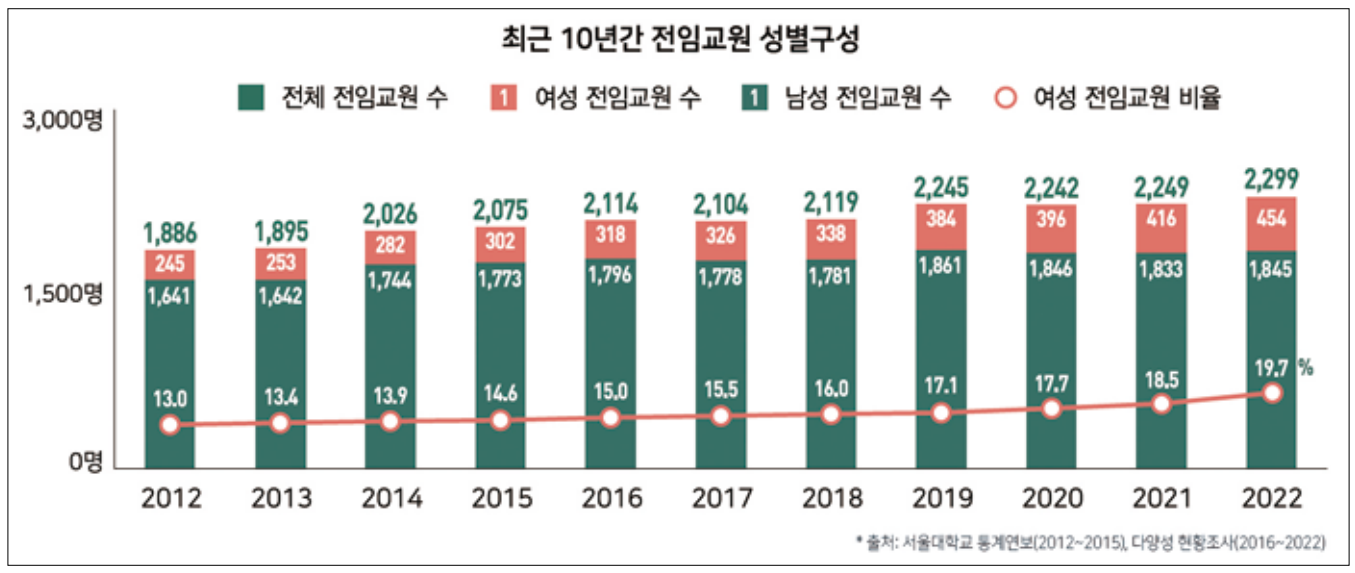
싱가포르대에선 RC 거주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다. 현재 LnL 건물 내에는 식당이 없다. 향후 RC 규모를 확대할 때 고려해 볼 부분이다. 유불란 전담교수는 "한 방향을 보는 강당보다 고대 원형극장처럼 소통하기 좋은 형태의 아고라가 생겼으면 한다.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 학기 동안 친해진 입주생들은 2학기 교과목 '학생설계세미나'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벌써 사회과학도와 이공계생이 실험을 해보겠다거나, '못난이 과일을 대량 구매해서 과일 섭취가 어려운 기숙사에 제공하겠다'는 등 각양각색 팀이 꾸려졌다.

유홍림 총장은 "장기적으로 학부대학과 LnL의 결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통과 공감능력, 세계시민성 등을 함양한다는 계획이다. 어쩌면 동창회가 추구하는 서울대인의 화합도 LnL에서 싹틀 수 있지 않을까. "서울대생이 모래알같다지만 여기 와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하지 말라' 속에 있다 보면 뭉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일만 잘 하면 되니까요.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재밌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뭉칩니다. 이런 시도가 늘어나면 서울대 전체의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요."(유불란) 박수진 기자

여성 전임교원 19.7% 여성 재학생 36%, 간호대에 남학생 23%…

2022 모교 다양성 보고서



2022년 기준 모교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재학생 중 여학생은 36.0%였고, 전임교원 중 타교 학부 출신 비율은 23.3%였다. 모교 다양성위원회(위원장 전창후)는 이같은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 현황이 담긴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22'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임교원 총 2299명 중 여성은 454명이었다. 2012년 13.0%에서 최근 19.7%까지 점진적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여성교원이 한 명도 없거나 10% 미만인 곳도 전체 155개 학과/학부/교실 중 37곳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여성 교원 비율이 낮은 단과대학(원)은 국제농업기술대학원(4.3%),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6.3%), 융합과학기술대학원(7.4%), 농업생명과학대학(8.2%),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10.9%) 순이었다. 모교는 2030년까지 여성 교원 비율을 25%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학부 재학생 총 2만350명 중 여학생은 7317명이었다. 과학·기술·공학·수학의 STEM 분야에서 여학생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자연대 학부 여학생 비율은 19.6%, 공대 학부 여학생 비율은 11.7%로, 최근 5년간 소폭 부침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과대학은 대학원도 석사 26.0%, 박사 19.3%로 여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생활대와 간호대 학부 남학생 비율은 각각 39.1%, 23.2%로 최근 5년간 상승세다.

전임교원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전임교원 중 내외국인을 합해 타 대학 학부 출신 교원은 23.3%로, 서울대 학부 출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내국인 전임교원 중 타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은 정교수(16.4%) 중에서보다 부교수와 조교수(각 26.5%, 36.45%) 내에서 더 높았다.

2022년엔 모교에 등록된 장애 학생의 수가 대폭 늘었다. 총 99명으로 2021년 대비 37명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모교가 최근 장애 학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상에서 장애학생 등록과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특집으로 모교에서 업무, 학생 지도, 수업, 연구, 회의 등의 일을 하는 △교원 △비전임교원 △직원/조교 △대학원생의 네 집단을 상대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일·생활 균형 실태를 알아봤다.

조사 결과 교원 응답자 199명 중 155명, 대학원생 응답자 573명 중 374명이 주말 혹은 휴일에도 학교에 나와 일한다고 밝히는 등 모교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서울대 구성원은 전반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매우 길고, '밤낮없이 일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며 "일·생활 균형은 신체·정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연구 생산성과 성과를 높이는 데도 필요한 만큼 연구자를 위한 일·생활 균형 모델을 구축해야 하고, 제도의 구비를 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썼다.

동아리 탐방 환경동아리 '씨알'

서울대, 서울 대형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 1위라니 할 일 많아요

탄탄한 지식 토대로 환경운동
음식물쓰레기통 설치 등 변화

폭염이 절정에 달한 7월 30일 오후, 학생회관에 있는 모교 중앙 환경동아리 '씨알'의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열려 있는 커다란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땀 흘리며 온 기자를 본 이 강(정치외교22입) 대표가 넌지시 '에어컨 틀어드릴까요'라고 물어왔다. 배려가 고마웠지만, 에어컨 가동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 지양했으리라 짐작했고, 그 뜻을 존중하고 싶었다. 신다솜(미학20입) 부원이 머그컵에 떠온 냉수를 홀짝이는 사이 몇 줄기 바람이 불어들고 차츰 땀이 식었다. "생각보다 견딜 만하다"는 말에 이 강 대표는 "저흰 이렇게 지낸다. 다행히 동방이 북향이라 시원하다"며 웃음지었다.

씨알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동아리다. 1993년 결성됐다. 정규 활동은 스터디와 프로젝트. 지난 학기 4개의 스터디 팀이 꾸려져 데이터 산업과 환경의 관계, 기후정의와 인권 및 동물권, 도시계획과 환경, 전쟁과 환경·평화를 주제로 공부했다. 3개의 프로젝트 팀은 플라스틱·의류 업사이클링, 학내 다회용기 활성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매주 1회 30여 회원 전체가 모여서 각 팀의 활동을 공유한다.

씨알의 특징은 탄탄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에 나선다는 것이다. 매 학기 초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신입 회원들과 '첫걸음' 세미나를 연다. 1학기엔 기후정의를 공부했다. 동아리방 책장도 도서관에 있는 환경 주제 서가로 착각할 만큼 환경 관련 책이 빼곡했다. 환경에 있어선 대부분이 비전공자라 서로 의논하면서 배워간다. '알고 하면 환경운동도 달라진다'는 것이 씨알의 오래된 지론이다.

미학을 전공한 신다솜씨는 "전공과 환경이 관련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씨알에서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란 책을 함께 읽고 환경에 관련된 미의식, 감수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며 "지식이 부족하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막연히 일회용품 안 쓰는 게 환경 보호인가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환경이 많은 것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실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강씨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삶도 달라진다. 얼마 전 채식주의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힘들어도 채식을 실천해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씨알은 기후위기대응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열린 기후정의행동에 참여했다.

학생회관에 없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든 것은 씨알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다. 관리 면에서 위험부담이 커 학교 측의 우려가 컸지만, 끈질긴 협의 끝에 설치할 수 있었다. 덕분에 건물 내에서 배달 음식 등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크게 해소됐다. 지난 학기엔 도서관에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해 병뚜껑 수거함을 설치했다. 처음엔 잘 안 모여서 걱정했지만, 학생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2학기 땐 병뚜껑으로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씨알은 모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와 협력해 학내 에너지와 전력 사용량 등 환경 지표를 모니터하고 있다. 서울 관내 대형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 1위, 에너지 소비 1위 등 환경 관련 지표에서 불명예 타이틀이 많은 서울대에서 환경 운동하기 버겁지 않을까. 동아리방 입구에도 '서울대의 에너지 전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환경 활동을 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런 서울대를 더 친환경적으로 바꿨을 때 서울시, 한국 사회에 우리 일이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학교와 협업하다 보면 저희 주장에 동의와 공감은 많이 해주셔도, 대학의 주 역할인 교육이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예산 배분에서도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가 후순위가 돼서 활동이 힘들 때도 있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나 혼자만 애쓰나' 싶을 때, 완벽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마다 무너지기 쉽다. 씨알 부원 모두 한 번씩은 거쳐간 고민이다. 이 대표는 "완벽하게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바꾼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실천해 가야죠.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지칠 땐 얘기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발간한 평가 보고서를 읽고 환경과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씨알에 와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신다솜씨는 "한때 카페에서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할 때마다 '귀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눈치 보였는데, 씨알에선 그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 했다. 동아리방에 으레 굴러다닐 법한 일회용 젓가락도 씨알엔 없다. 가정집처럼 스테인리스 수저 여러 벌을 통에 꽂아놓고 쓴다. "활동 보고도 꾸준히 올라오고, 부원들이 쓰는 환경 관련 글도 공감돼서 들어왔거든요. 기숙사에서 쓰레기통 비울 때마다 쓰레기 줄여야지,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씨알에서 잘했다 해주니까 쓰레기 줄이는 게 즐겁더라고요. 환경을 위하는 게 손해 보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에는 연대가 필수다. 모교에 환경 관련 동아리만 씨알을 포함해 6곳. 서울대환경동아리연합회의라는 이름으로 뭉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곤 한다. 올해 봄축제에도 연합회의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총학생회가 협력해 부스에서 음식을 팔 때 다회용기에 담아 내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작년 9월엔 기후정의의 날을 맞아 전국 환경 관련 단체가 모이는 기후정의행진에도 참여했다. 이 강 대표는 "앞으로 학교 외부 단체와 연대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동아리방에 들렀을 때 방명록을 쓰는 것이 소소한 전통.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요즘 뭐가 맛있고, 시험 치기 싫고' 같은 시시콜콜한 잡담을 적고 가는 노트가 수십 권째 쌓여가고 있다. 올해 초 파워플랜트에서 동아리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전을 열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홈커밍데이를 열고 씨알을 거쳐간 수십 명의 선배들 앞에서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격려도 듬뿍 받는다. 이 강 대표는 지난해 씨알 창립 멤버 선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씨알'은 함석헌 선생이 '민중, 민초'라는 뜻으로 쓰던 단어인데, 멋있어서 동아리 이름으로 지었다"는 비화를 처음 들었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동아리를 후원하는 선배들도 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끓는 지구' 시대로 돌입한 가운데, 씨알에도 신입 지원자가 급격히 늘었다. 동아리엔 좋은 일이지만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했다. "저희도 얘기하다 보면 그때그때 달라져요. 어떤 날은 절망하고, 어떤 날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죠.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요." (이 강)

박수진 기자

학생이 만든 태양광차 "씽씽 달립니다"

모교 태양광 자동차 동아리 '스누솔로'가 10월 호주에서 열리는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브리지스톤 월드솔라챌린지'를 앞두고 7월 31일 모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공개한 태양광 자동차 '도깨비'는 스누솔로 소속 학부생 23명이 약 1년간 제작한 1인승 차로 평균 시속 60km 이상, 최고 시속 80km 이상을 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 직접 만든 지능형 주행 알고리즘도 탑재했다. (본지 538호 '동아리 탐방' 참고) 이들은 월드솔라챌린지에서 6박 7일간 호주대륙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3000km 레이싱에 도전한다.

네이버, 모교 병원 연구지원금 300억원 기부

네이버가 모교 병원(병원장 김영태)에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지원기금 300억원을 3년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모교 병원이 기부받은 단일 연구 지원기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이번 기부는 우수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보건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자체 AI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을 연구해 온 네이버가 관련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7월 17일 모교 병원 대한의원에서 열린 기부 약정식에 참여한 최수연(지구환경시스템공학00-05) 네이버 대표는 "초거대 AI 기술의 등장으로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과학자 인재 양성과 선제적인 융합 연구의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모교는 연구공모 절차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모교 병원 연구자를 선정하고, 기부금을 활용해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연구 중심의 병원 문화를 확립해 간다는 계획이다.

모교 단신

모교 연합팀 국제 AI로봇대회 2관왕

모교·부산대 연합 로봇팀 '타이디보이(Tidyboy)'가 7월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인공지능 로봇대회 '로보컵 2023' 홈 서비스 부문에 출전해 '오픈 플랫폼 리그'와 '도메스틱 플랫폼 리그'에서 2관왕을 거뒀다. 이승준(전기공학96-00) 부산대 전기공학과 교수와 장병탁(전자계산기공학82-86)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 19명이 결성한 팀으로 자체 제작 로봇을 사용하는 부문에서 우수한 물체인식과 자율 주행 능력, 정교한 로봇팔 조작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선보였다.

모교 인근 원룸 월세 '44만8000원'

6월 말 기준 모교 관악캠퍼스 인근 지역 원룸 평균 월세가 44만8000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을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평균 월세 45만7000원에 비해 2% 하락해 조사 지역 중 유일하게 월세값이 내려간 지역이었다. 월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이화여대 인근(65만5000원)이었고, 성균관대 인근(60만5000원) 중앙대 인근(60만3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여자농구부 SUN, 대학 농구대회 우승

모교 여자농구부 썬(SUN)이 7월 열린 국민대 총장배 전국 대학 아마추어 농구대회 여자부에서 우승했다. 대회 첫 우승으로 결승전에서 연세대 여자농구부 미스비(Miss-B)를 36 대 33로 꺾었다. 2020년 결성된 썬은 최근 2년 연속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클럽챔피언십 여자농구에서 우승하거나 상위권에 입상하며 대학 아마추어 여자 농구 강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부원들이 주3회 훈련을 통해 기량을 다지고 있다.

현대차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개관

7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에 '현대차그룹-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가 개관했다.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3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모교를 비롯한 국내 대학 21명의 교수·연구진이 참여해 차세대 배터리 선행기술,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술, 첨단 공정기술 연구 등 22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모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를 증축해 지은 센터는 3층 901㎡ 규모로 배터리 개발, 분석, 측정, 공정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을 구축했다. 이날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린 개관식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CTO 김용화 사장, GSO 김흥수 부사장 등과 모교 유홍림 총장, 홍유석 공대학장, 센터장인 최장욱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사전외래 시작

국내 최초 독립형 어린이 단기의료돌봄시설인 모교 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가 10월 개소를 앞두고 사전 외래 운영을 시작했다.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과 정부지원금 25억원을 바탕으로 건립된 센터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중증 소아 환자의 단기 입원(1회 6일, 연간 최대 3~5회)과 돌봄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원 조건은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등 의료적 요구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등이다. 사전 외래 기간에는 센터 이용 희망 환아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과 돌봄 계획 등을 점검한다. 안내 및 예약은 홈페이지(http://child.snuh.org/)와 앱, 예약센터(1577-5700).

초거대 AI모델·플랫폼 최적화 센터 개소

'초거대 AI 모델 및 플랫폼 최적화 센터'가 모교에 개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2030년까지 초거대 AI 모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 플랫폼, 알고리즘, 응용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7월 20일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개소식에서는 세계적인 AI 구루로 꼽히는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가 특별 강연을 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신기…물도 좋고 동물도 좋아 수생동물 수의사 됐어요"

홍원희 (수의학07-11)
아쿠아플라넷 제주 선임 수의사

국내 첫 수족관 전속 수의사 뒤따를 사람 위해 11년 버텨

천혜의 관광지 제주. 그중에서도 명소로 손꼽히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600여 종, 5만여 마리의 수생동물이 전시되는 세계 수준의 초대형 해양종합문화시설이다. 11년 전 개관한 이곳에서 11년째 수생동물을 보살피고 있는 홍원희 선임 수의사는 입사 초기 수중공연에 출연하라는 지시를 받을 만큼 '수생동물 수의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후 개장한 아쿠아플라넷 여수, 일산 및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도 전속 수의사가 배치되는 현재를 개척한 선구자다. 홍원희 동문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예전엔 전속 수의사 없이 외부 수의사들과 계약을 맺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가 생긴 동물을 치료하는 정도였습니다. 예방 진료 같은 건 엄두를 낼 수 없으니 수족관 폐사율이 높았죠. 그런데도 제게 기대됐던 건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아쿠아리스트(수중공연과 함께 수중생물의 사육·관리 담당)'였어요. 수의사란 직군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 자리를 만들어가야 했죠. 갖춰진 장비가 많지 않아 진료를 보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폐사하는 동물이 생기면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모교 졸업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린 매멀센터와 캐나다 밴쿠버 수족관에서 학생 익스턴(인턴보다 시간과 비용을 덜 투입하면서, 직무 교육에 집중하는 형태)으로 근무한 적 있는 홍 동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외로 나가야지 생각했었다고 한다. 처음 1년 동안은 진료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그러나 일산 수족관에서 일하는 후배 변재원(수의학08-14) 동문을 만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 홍 동문이 먼저 겪은 고충을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것.

"사표를 낸 그 후배가 퇴사 직전 저를 지목해 인턴으로 교육받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혼자서 주변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지 잘 알면서 여태 그를 혼자 뒀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수족관 업계에서 수의사의 자리를 잡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란 것도 깨닫게 됐죠. 제가 적응 못 하고 나가면 다시 이 자리를 만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게 뻔했어요.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건 다 그 후배 덕이죠. 힘을 합쳐 으쌰으쌰 해서 수의사 자리를 더 만들자는 목표도 생겼었습니다."

아쿠아리스트, 수산질병관리사(수산업에 초점을 맞춰 어류의 치료를 담당) 등 기존 직군 직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을 만큼 바빴다고. 특히 모교 수의대 동문들이 발벗고 나섰다. 모교 서강문(수의학82-86) 교수는 당일치기로 제주에 내려와 눈 다친 물범의 수술을 집도했고, 제주대 김재훈(수의학82-90) 교수는 병리학적 차원에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홍 동문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동문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생물학과를 나와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깨달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편입시험을 준비했었죠. 10살 아래 동기들이지만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동기들이 저를 어려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웃음). 다들 너무 똑똑한데 나이 탓인지 공부를 쫓아가는 게 힘들었죠.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니 자괴감도 들었고요. 수의대는 필수과목이 많아 고등학교 때처럼 교수님들이 각 반으로 오셔서 수업하는데, 졸업식 날 동기들을 이렇게 다 같이 볼 일은 이제 없겠구나, 싶어져 서운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체 정이 많은 홍원희 동문. 치료하던 동물이 잘못되면 억장이 무너진다. 폐사한 동물은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데, 돌보던 동물을 부검할 땐 부들부들 손이 떨린다고. 죽음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충고를 곧잘 듣지만,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다행인 건 치료를 통해 동물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즐거움 또한 질리지 않는다는 것.

동물 복지 차원에서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에 따라 수족관·동물원 법이 점차 바뀌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족관은 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수생동물 수의사에 대한 인식도, 회사의 생각도 바뀌었다. 진료실·처치실·약제실·임상병리실을 갖춘 메디컬센터가 만들어졌고, 전국 수생동물 임상 수의사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시로 학술적·실무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고요한 아침, 수족관을 돌며 물속 동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제 직업에 감사하단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동물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재밌어요. 할리퀸 새우가 불가사리를 밥상 삼아 먹이를 얹어놓고 먹는 것도 귀엽고, 다가가면 인사하고 지나가는 큰돌고래도 반갑죠. 나름 위장이랍시고 돌처럼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고, 무심히 제 갈 길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문어는 소라 껍데기 안에 숨어 눈만 빼꼼 내밀고 있다가 제가 손가락을 뻗으면 영화 'ET'의 한 장면처럼 촉수를 쫙 뻗기도 해요. 도저히 안 예쁠 수가 없죠!"

나경태 기자

"콩쿠르 우승과 오페라 가수로 성공은 별개, 계속 도전해야죠"

바리톤 김태한 (성악19-23)

6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아시아 남성 최초·최연소 기록

6월 4일 아침 국내 클래식계는 벨기에에서 날아든 낭보에 들썩였다.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바리톤 김태한 동문이 우승했다는 소식이었다. 올해 22세로 역대 성악 부문 우승자 중 아시아 남성 최초 우승이자, 최연소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피아노·첼로·성악·바이올린 부문이 돌아가며 개최되니 4년에 한 번 온 기회였다.

SNS로 살펴본 그는 친구도 많고 유행하는 밈(meme)도 곧잘 쓰는 20대 초반 청년이었다. 이메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진중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한순간의 결과물인 등수보다, 무대를 갈망하고, 무대에 서기 위해 콩쿠르에 도전했다"며 거듭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소프라노 조수미 동문이 우승 발표 후 그를 꼭 안아주며 건넨 말도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었다.

"다른 기악 연주자와 마찬가지로 성악가도 독주자로서 기량이 중요하지만, 클래식 음악의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직업으로 삼기 위해선 개인의 실력 외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가에게 권위 있는 콩쿠르의 우승이 오페라 가수로서, 연주자로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도전을 이어나가야죠."

결선에서 그는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와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속 아리아 등 4곡을 불렀다. 한 평론가의 표현에 따르면 '전아한' 소리였다. '법도에 맞고 아담하다'는 뜻이다. 벨기에 소설이 원작인 코른골트 '죽음의 도시' 중 '나의 갈망이여, 나의 망상이여'를 부를 때는 짙은 서정성으로 귀를 사로잡았다. "평소 곡의 가사가 되는 시나 대본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곡의 화자를 캐릭터화하는 걸 중요시하고 또 즐깁니다. 공부와 연구가 연습과 같이 쌓였을 때, 음악의 완성도도 한없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되어서 감정적인 연기를 하려고 노력해요."

"좋은 성적보다 매 라운드 무대를 즐기자"고 생각해 긴장도 하지 않았다. 간절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역량을 맘껏 펼쳤을 뿐이다. 결선곡 중 베르디의 '돈 카를로'는 이탈리아어로 널리 불리지만 본래 프랑스어로 쓰인 작품. 그는 벨기에 공용어인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묘수를 냈다. 벨기에 복판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땅 이름이 들어간 마지막 구절 '플랑드르를 구해 달라'를 불렀으니, 청중의 마음이 진동했을 법하다. 정확한 발음으로도 호평받은 그는 "딕션(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제음성기호로 발음 공부하는 게 정석이지만 원어민 화자의 노래를 많이 듣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익혔다"고 했다.

김 동문은 성악을 시작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어릴 적 가요와 록음악을 좋아해 교내 밴드부 활동도 잠깐 했다. "제대로 노래 하려면 성악을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중3때 성악에 입문했다. 예고를 거쳐 모교 입학 후, '발성 혼란기'가 크게 와서 하마터면 노래를 그만둘 뻔도 했다. "같은 나이 친구들과 경쟁하다가, 성숙한 소리를 가진 형들을 동기로 만나게 되니까 제 부족함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동기들과 서로 조언을 나눴지만, 무의식 중에 남의 말을 무시하고 변화가 두려워 내 방식만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이 연습했던 게 오히려 목에 무리를 줬고요."

모교에 출강하던 바리톤 나건용(성악00-04) 동문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3때 뵙고 제자로 배운 건 대학 때 처음이었는데, 선생님께선 저를 어린 아이로 보지 않고 한 명의 성악가로서 부족한 부분을 낱낱이 분석하고 함께 고민해주셨어요. 권위적인 선생님보다 친구이자 아버지같은 따뜻함으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해 선생님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국내파인 그는 "서울대 음대의 모든 커리큘럼이 밑거름이 됐다"고 돌아봤다. 학내 정기오페라에 선 뒤로 '빨리 세계 오페라 무대로 나가고 싶다'는 꿈도 품었다. "1학년 때, 쟈코모 푸치니의 '일 트리티코(삼부작)'에서 합창과 무대 전환수 역할을 맡았어요. 다른 인터뷰에서 거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뱃일을 하는 선원 역할이었죠. 3학년 때 자크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에서 각 막 별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1인 4역의 악마로서 처음 주역으로 데뷔했고요. 역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대학생 신분으로 대작을 올린 경험에서 노력하면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힘을 얻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놀면서도 연습했다던 그는 졸업반인 지난해에만 광주성악콩쿠르 2위에 이어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 콩쿠르, 스페인 테너 비냐스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큰 재목의 조짐을 보였다.

이제 그는 많은 콩쿠르 우승자가 그랬듯 오페라 주역으로 향하는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오른다. 우선 9월부터 2년간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퍼의 오페라 스튜디오에서 젊은 성악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시간 반짜리 오페라 중 5분 분량의 작은 역부터, 비중 있는 단역까지 다양하게 소화할 예정이다. 곧 콩쿠르 수상자들과 월드 투어를 시작하고, 10월엔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석사 과정에 진학한다. 지역마다 오페라 극장이 있고 활발하게 오페라 시장이 돌아가는 독일에 매료돼 일찌감치 유학을 결정했다.

"아직 유럽 무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선배님들께서 유럽 각지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해주신 덕분에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실감해요. 선배님들이 헤쳐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에, 그 발자취는 제게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한 선배님께선 이름도 모르는 까마득한 후배에게 단지 서울대 후배란 이유로 식사를 제공해주셨어요. 이 인터뷰를 빌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너 아름다운 예술아, (중략) 내 마음에 온화한 사랑을 불붙였고, 날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했구나'. 그가 좋아해서 곳곳에 적어둔 슈베르트 가곡 '음악에게(An die Musik)'의 가사다. "힘들고 지친 마음이 예술로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음악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어요. 저 또한 예술로써 관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늘 그랬듯이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동문 서비스1 :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 고
	서 울	경 주	지리산	설악산	
객 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 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 고
객 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 원/일)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055-530-8100)
- 예다함상조 :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1566-6644)

앰배서더 호텔 그룹

구 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앰배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앰배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90000	110000	125000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2000	95000	120000	135000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4000	105000	130000	145000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0000	180000	220000	25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3년: 1/20~1/23, 4/28~5/1, 5/4~5/7, 6/2~6/5, 7/21~8/19, 9/27~10/2, 10/6~10/8, 12/22~12/24, 12/29~2024년 1/1			

※ 세금, 봉사료 포함가,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63-441-8000

하늘계곡 연수펜션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

구 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 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 실 : 성·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43-653-2013, www.skyp.co.kr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 **램스에비뉴 (양고기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음료 제외)
※ 예약 및 문의 : 02-303-898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결혼정보업체 듀오 10% 할인

●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 1577-8333

동문 서비스2 :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제천 명지병원 인천사랑병원	031-810-6383 043-640-8450/8451 032-457-2800	건강검진 20~30% 우대 비급여진료 10% 우대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움건진센터	삼성	1800-7750(내선1번)	35·50만원
	청담차움(프리미엄)	02-3015-5001	80·100·150·200만원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 경조 서비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 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80000원	80000원		

● **신 청 _ 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 전화 02-702-2233

● **입 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배 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Mall SNUA 회원 8200명 돌파

Mall SNUA가 개설 1년 만에 가입 회원 수 8200명을 돌파했다.

모교 동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김종섭 본회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착수, 작년 8월말 오픈한 Mall SNUA는 모교 동문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쇼핑몰로 삼성전자, LG전자, 삼익악기, 패션형지, 깨끗한나라 등 국내 대표 IT 기업과 악기, 패션, 생활용품 기업까지 입점해 총 4000여 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1년 만에 가입 회원 수와 취급 상품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는 동문 기업 오너나 임원들의 후의의 영향이 크다.

Mall SNUA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은 입점 계약에 최저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문 기업을 대상으로 배너 및 팝업 형태의 광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엔 미대 동문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과 아트상품이 입점했다. 모교 미대동창회가 본회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모교 동문들에게 제공했던 우수 미술작품 소장의 기회를 Mall SNUA를 통해 더 쉽고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 받게 된 것. 다른 전시장에서 구입할 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크다.

미대동창회는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본회 특지장학금이나 동문 작가들의 창작지원금으로 쾌척하겠다고 밝혔다. Mall SNUA 회원은 더 쉽고 저렴한 가격에 동문 작가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동문 작가들은 창작지원금을 받거나 후배 미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달의 추천 상품

-하만카돈, JBL, 마크레빈슨 등 오디오 기업 할인전
-쿠쿠 전기밥솥 기획전
-벨기에산 프리미엄 친환경세제 에코버 여름 기획전
-다림질 필요 없는 어반트 여름셔츠 기획전
문의: 02-336-9194

9~10월 행사 안내

행사 문의 : 02-702-2233

조찬포럼

일 시 : 9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 제 :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국토문화기행

일 시 : 9월 21일 (목) 오전 9시
답사지 : 충남 내포지역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주 제 : 미정
안내 및 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참가비 : 5만원 (김밥·오찬 제공)

수요특강

일 시 : 10월 25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주 제 : 생성형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
참가비 :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등산대회

일 시 : 10월 하순
산행지 : 미정

동문맛집

까다로운 평양냉면, 50년 넘게 고집하는 이유

정현아 (농가정82-86)
은평구 '만포면옥' 대표

실향민에게 '고향의 맛' 선사 올해 5월 한식 대가에 선정

커다란 보냉 가방에 불고기며 갈비탕이며 손수 빚은 만두에 반냉동한 녹두지짐까지 빈틈없이 싸고 있었다. 기자가 평양냉면을 배부르게 먹고 일어서던 참이었다. 염치없게도 괜찮다, 그냥 두시라, 말하지 못했다. 포장하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친정 갔다 돌아오는 아내의 마음이 이러할까. 인터뷰 때, 아꼈기 때문이 아니라 나누었기에 살아남았다고 한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7월 1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백년가게' 만포면옥 본점에서 정현아 대표를 만났다.

"만포면옥은 1972년 개업한 평양냉면 전문점입니다. 평안북도 희천 출신 시아버지 지해성님과 평안남도 용강 출신 시어머니 진정옥님이 8남매의 생계를 위해 탁자 3개를 놓고 처음 시작한 가게였죠. 두 분 모두 큰 부잣집 자제들이셨는데 시아버지의 영화사업이 실패하면서 온 가족이 식당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은 맷돌로 녹두를 갈았죠. 지금은 유압식 제면기로 면을 뽑지만, 옛날엔 모두 손으로 했대요. 나무틀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서 사람이 반죽을 눌러 면을 내렸죠. 집안에 머슴이 없으면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가세는 기울었어도 두 어르신 입맛이 여전하니 맛있을 수밖에요."

평양냉면의 주재료는 메밀. 그리고 차돌양지를 푹 고운 육수에 동치미를 더해 감칠맛을 낸다. 달고 아삭한 겨울무로 동치미를 담가 육수로 쓰는 까닭에, 지금은 무더운 여름에 즐겨 찾지만, 본래 겨울 음식이다. 이냉치냉(以冷治冷). 정 대표는 "찬 구들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며 먹었던 평양냉면"이라며 "겨울에 더 맛있다"고 귀띔했다.

만포면옥은 개업 초기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준 음식으로 입소문을 탔다. 긴 시간 영화계에 몸담았던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신영균·김희갑·이예춘·김지미 등 유명 배우들이 자주 찾아 더욱 인기를 끌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다리막걸리에 곁들여 만포면옥 냉면과 녹두지짐을 즐겨 드셨대요. 그런 날이면 가게 문이 딱 걸어 잠겼습니다. 항의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경호원의 기세에 눌려 더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곳을 찾았고요. 51년을 이어오면서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오던 꼬마가 어느덧 청년이 돼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노부부가 함께 손잡고 오시다가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혼자 오십니다. 한결같이 추억을 일깨워줘서, 맛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평양냉면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맛이 변한다며 프랜차이즈는커녕 직영점 개점마저 거부한 시어머니의 고집 덕분이죠."

정 대표와 만포면옥의 인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동창 지용석씨가 이 집 셋째 아들이었던 것. 은평구 토박이였던 까닭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은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사장 아들이지만 카운터에서 거드는 정도였던 남편에게 밑바닥부터 주방일을 배우도록 독려했다. 2019년엔 불고기 식당을 운영하던 맏사위를 사돈댁과 힘을 합쳐 설득, 일찌감치 후계 구도를 확립해 3대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운명을 예감이나 한 듯 정 대표는 모교 졸업 후 한식 및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뒀다. 평양냉면 외 갈비탕, 어복쟁반, 옛날불고기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 여름에 왕창 벌어 겨울에 버티는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가게 경영뿐 아니라 음식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2013년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 공부했고, 올해 5월엔 대한민국 한식포럼에서 한식 대가로 선정됐다. 1대에서 2대, 3대로 이어지는 동안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으나 정 대표가 실력으로, 또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중심을 잡았다.

"레시피 없이 감으로 일정한 맛을 내는 게 선대의 방식이었어요. 저희는 규격화된 레시피의 적용을 꾀했죠. 장사에서 사업으로 성장하려면 누가 어디에서 조리하든 일정한 맛을 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조리가 끝난 평양냉면은 함흥냉면에 비해 빨리 불고, 동치미를 희석한 육수는 아침 맛과 점심 맛이 다를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평양냉면집은 동치미를 버리고 고깃국물로만 육수를 내죠. 함께 일하는 맏사위가 주장하는 것도 그런 트렌드예요. 제가 처음 만포면옥에 합류했을 땐 손님이 짜다고 하면 주방에 달려가 짜대요, 하고 다른 손님이 싱겁다고 하면 또 달려가 싱겁대요, 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 남의 입맛에 연연할 게 아니더라고요. 노포(老鋪)로서 전통을 지키되 안주하지 않는, 손님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식당이 되자, 만포면옥의 모토랍니다."

지금도 가게 한편에서 손수 만두를 빚는 정현아 대표. 한 손님이 "어떻게 그렇게 꼼짝 않고 종일 진지하게 만두를 빚냐.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자 이때다 싶게 "저 서울대 졸업생입니다" 답했다고.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동문들 덕분에 손님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가 생계를 위해 맨땅에서 시작한 반면, 저희는 어느 정도 갖춰진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 만큼 사회적 기여에도 힘을 쏟고 있어요. 이웃 복지관에 식사 대접도 하고 명절 땐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요.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반백 년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눴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만두나 빚는단 소리 듣지 않고, 그래서 더 믿어주시는 이유죠. 동문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반려견 동반석 구비. 단체 120석, 주차 10대. 모든 메뉴 포장 가능. **나경태 기자**

문의 0507-1377-3917
인스타그램 @manpo.official

사진한컷

반 세기 전, 우리

김재윤 (농생물64-72)

1964년 5월 어느날 농과대학 본관 앞 잔디밭에서. 64학번 농생물학과에 갓 입학한 신입생 시절, 오후 수업이 끝나고 18명 전원이 피라미드대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정겹던 한때. 당시 상의 교복 차림도 눈에 띄고…. 추억의 수원 서둔동 캠퍼스, 지금은 폐쇄된 채 새 주인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가까이 연습림과 수목원 그리고 여기산 그림자 띄우는 서호 제방은? 향학열 불태우며 꿈 많던 청춘이여!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라!

※ 동문 사진 공모합니다.

3MB 이상의 화질로 300자 내외의 사진 설명을, 성함·학과·입학연도·주소·휴대폰 번호와 함께 news@snua.or.kr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동문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02-886-2219

화제의 동문 유튜버

이상준 (수학97-02) 경희대 수학과 교수 **'만만한 수학TV'**

과거의 나와 수학으로 나누는 대화

없는 게 없는 유튜브엔 대학 교수의 수학 강의도 있다. 경희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준 동문의 '만만한 수학TV'. 미적분학, 정수론 등 대학수학 키워드 검색 1위 채널을 달리는가 하면, 초등생 아들과 분수 문제를 풀며 '아빠표 수학' 영상도 올린다. 수학만으로 1만6000 구독자를 모으는 일을 해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드라마 '시그널'에서 과거와 현재의 두 형사가 시간을 넘어 무전기로 연락한다. 내 채널도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사이 '수학 시그널'이다. 첫째는 2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나와의 시그널이다. 수학을 좋아해 전공으로 택했지만, 너무 어려워 재능이 없다고 자책했다. 좋은 공부 방법을 깨닫자 수학이 쉬워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나와 소통하듯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영상을 올린 게 채널의 시작이다. 둘째는 30여 년 전 초등학생 시절 나와의 수학 시그널이다. 당시 수학을 잘 못 했는데 아들이 벌써 그 나이가 됐더라. 예전의 나와 소통하듯 아이와 대화하며 가르치고 있다."

-댓글에 감사 인사가 많다. 대학생도 수학 강의에 목말랐구나 싶다.

"많은 대학생, 편입준비생, 교원 임용고시 준비생이 전공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등학교 땐 사교육 도움도 받고, 문제를 반복해 풀며 공부하지만 대학생은 그럴 수 없다. 그에 반해 대학수학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전문가 영상이 많지 않은데, 고교수학과 연결해 설명하고, 쉽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줬더니 많이 시청하는 것 같다."

-아들과 수학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아이가 수학학원을 다니며 수학에 흥미를 잃어가는 걸 봤다. 내가 직접 가르치며 모든 과정을 올리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초등학생 때 나와 아들의 생각이 비슷해서 신기하다. 때로는 촬영에 부담을 느껴 안쓰럽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내 아이 가르치기가 그리 힘들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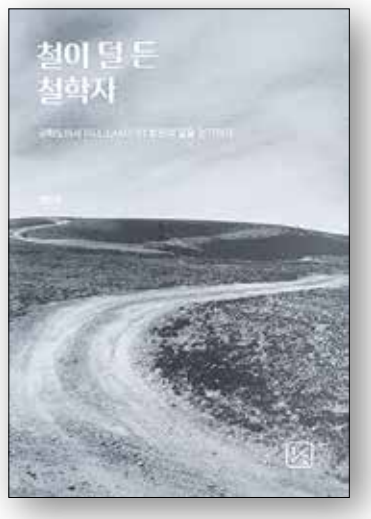
"정말 쉽지 않다. 솔직히 울화가 치밀 때도 있지만, 아이가 시나브로 발전해 가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다. 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자신의 풀이를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개념과 풀이법을 명확하게 깨닫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다. '수학이 만만해지고, 재밌어졌다'는 아이의 말을 들으면 직접 가르치길 잘했다 싶다. '수학 금수저'란 댓글이 있던데, 누구나 보시라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란다."

-유튜버로서 목표가 있다면.

"전문적인 채널로 확장해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다양한 사람을 돕고 싶다. '실버 버튼'도 받고 싶고. 수포자(수학 포기한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수놀자', 수학으로 놀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을 만들었는데, 내 채널 덕에 '수놀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박수진 기자**

화제의 책

고향 합천까지 500km 걸으며 돌아본 70년



철이 덜 든 철학자

정인조(금속공학71-75)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이분의일

자서전을 준비하는 동문이라면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책이 나왔다. 정인조 동문의 '철이 덜 든 철학자-공학도에서 아니 소사이어티 회원의 길을 걷기까지'. 정 동문은 일반적인 연대기식 자서전의 틀을 벗고, 걸어서 고향까지 500km를 순례한 18일의 여정을 중간 중간 삽입해 18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첫날 여정 소개와 함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이다. 18일간 걸으면서 70년 인생을 정리한 느낌이다.

정 동문은 2020년 칠순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버킷리스트 두 가지를 실행에 옮겼다. 하나는 파주 임진각에서 고향 합천까지 걷기고, 두 번째는 자서전을 출간하는 일이었다. 고향 순례는 2021년 8월 19일~9월 5일 이뤘고, 자서전은 지난 7월 11일 발간했다.

정 동문은 걷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썼다. "'왜 걷는가' 4년 전부터 걷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지난 70년의 생애를 되돌아보니, 고향을 떠나 살아온 50여 년 동안 맺은 수많은 인연이 떠올랐다. 인연들을 떠올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나라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고향과 분단된 조국의 평화를 염원하며 걷기로 결심했다."

하루 약 4만5000보 30여 ㎞를 걷는 18일의 강행군 동안 그의 머릿 속에는 오롯이 '고향'이 자리하고 있었다. 소먹이며 꼴 베던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인심 좋은 고향 사람들….

책에는 중공업과 정유업체 근무를 거쳐 2001년부터 정유·석유화학·발전 등 기간 산업의 공장 신설과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검사·감리업체인 '글로벌21'을 창업 운영해온 과정, 일반 시민으로서 공동체 삶에 관심을 갖고 시민 사회 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 등을 담백한 어투로 담아내고 있다.

13일차에서 15일차 장에는 부천희망재단 설립 이야기, 모금가의 실망과 희망 등 모금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조언이 담겨 있어 재단에서 모금 활동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정 동문은 희망제작소에서 주관하는 '모금전문가과정'을 9기로 수료했고, 국제모금전문가(CFRE) 자격 시험에도 6번 도전했다. 그가 모금전문가 분야를 공부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다. '기부자들의 기부 동기의 80%가 누군가에게 요청받았기 때문이라면, 기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은 이유의 80%는 요청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의 기부 기록이다. 그가 보관하고 있는 연말 기부금 영수증을 토대로, 지난 1983년부터 2022년까지 합산 기부금액이 얼추 21억원에 이른다. 43살 때 작성했다는 그의 '비전'에서 '총수입의 12%는 기부하고, 재산의 50% 이하를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했다. 2017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기도 했다.

책 제목이 철이 덜 든 철학자로 정한 까닭에 대해 "공학도로서 평생 철을 만났지만, 아직 철이 덜 든 철학자로서 앞으로 철이 가득 든 철학자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렇게 정했다"고 했다.

김남주 기자

BOOKS

사소한 디테일이 초격차 만든다

장세일(전기공학59-63) 일성하이스코 명예회장 / 바이북스

장세일 동문이 80대 현역 CEO의 인생비결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다. 주식회사 일성을 설립, 석유화학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 동문은 여든을 훌쩍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서전에는 57년간 직장생활과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특별한 실력과 인간관계 노하우가 담겨 있다. 예컨대, 초고도의 실력은 사소한 디테일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이론은 인간관계와 건강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된 그의 인생 비결이다. 장 동문은 "이 책을 통해 사소한 디테일의 비법을 발견,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행정63-69) 전 불교방송 사장
운주사

이 책은 현대 세계의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문명사적으로 살피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되, 누구도 주체가 없다는 불교의 연기법과 공성(空性)에 주목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쟁(和諍)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사상에 기초한 '둘이 아닌 세상'의 관점, 즉 불교적 사회사상을 중요한 축으로 하여 대지와 생명·인간·사물의 '둘 아님'의 새로운 문명세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활생문명'이란 자연 수탈 문명에서 생명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문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문직의 적성DNA·성공DNA

이종열(경영69-73)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부크크

합격자의 과잉공급으로 전문직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종열 동문은 한국, 호주, 미국 등지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이 동문은 오랫동안 이들을 관리하며 5대 전문직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다. 장기간에 걸쳐 전문직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인성과 적성 그리고 성공 전략들을 수집·정리해 왔다. 저자는 "이 책이 막 고시에 합격한 전문직들과 막연히 전문직을 지망하는 많은 학생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촌 그리는 마음

정광헌(독어교육71-78) 청운초 운영위원장
이유출판

어린 시절은 영원한 노스탤지어인가. 정광헌 동문은 이런 물음에 답하듯 옛 추억을 글과 그림으로 생생하게 풀어낸다. 저자는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경기 광주에서 태어나 네 살 때 서울로 이사 온 후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서촌에서 보냈다. 언덕에서 구르다 쇠똥구리와 맞닥뜨린 두세 살 적 기억부터 대학 재학 중 긴급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군에 징집되기까지, 그가 써 내려간 이야기 속에는 그 시대의 생활상뿐 아니라 굵직한 현대사가 포개져 있다. 수출 역군으로 지구촌을 누비던 정 동문은 70대에 접어들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정감 있는 그림과 글로 그 시절을 복원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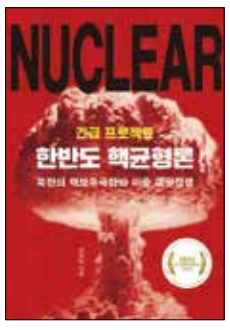
아들에게 쓴 퇴계의 편지 1~3

김운기(응용미술78-82) 전 동단건축 대표
다운샘

대학자 퇴계의 학문적 위업은 널리 조명됐지만 자연인 퇴계의 면모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조선시대 서찰 연구로 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운기 동문은 퇴계가 맏아들 준에게 30년간 보낸 편지 531통을 번역해 아버지이자 생활인 퇴계의 면모를 발굴했다. 퇴계 종택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한 편지를 완역한 것으로 1권은 학령기 아들에게 학업과 사람됨을 가르치며 집안 살림을 상의하는 편지, 2권은 출사한 아들에게 공직자의 자세와 손자 교육을 일러주는 편지를 모았다. 3권은 날짜 미상 편지들이다.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는 지금의 부모에게도 통할 고전이다.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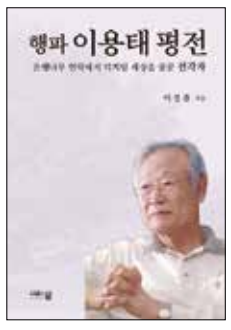
이우탁(동양사84-88) 연합뉴스 선임기자
역사인



북한은 2023년 봄 서울상공 800m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도발을 감행했다. 비밀리에 핵 개발을 착수한지 30여 년 만에 세계에서 9번째 핵무장국가가 됐고, 한반도 남쪽을 향해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주고 있지만, 서울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에 천착해온 이우탁 동문이 제안하는 '한반도 핵 균형론'이다.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미국 핵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독자 핵무장 등 핵 균형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다.

행파 이용태 평전

이성흠(대학원84-89) 전 경기대 교수
사람과 삶



대한민국 정보화 혁명의 대부로 불리는 이용태 동문의 삶을 그렸다. 이 동문은 1980년 국내 최초 컴퓨터 회사인 '삼보컴퓨터'를 설립해 국산 개인용 컴퓨터를 선보였다. 1982년에는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데이콤) 사장으로 취임해 디지털통신 선진화 사업을 주도하면서 종합행정전산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1996년 '두루넷'을 세워 초고속인터넷을 세상에 전파했다. 20세기 중후반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에서 이룩한 업적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평가하는 한편,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도전한 그의 성공과 좌절, 그 의미도 함께 담았다.

포스트 챗GPT, 역량 딥다이브

이민영(대학원05-13) T&D 파트너스 대표
크레타

먼 미래에 등장할 것만 같던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옆에 바짝 다가오면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고 있다.

20여 년간 기업 현장에서 HRD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민영 동문의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로의 역할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업무 환경을 변화시킬지 고민하고,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쓰기, OKR 성과관리, 소프트 스킬 함양, 자기계발, 취업과 채용 영역에서 어떻게 챗GPT를 활용해야 하는지 실전 사용방법을 알려 준다.

EXHIBITIONS

김수학 조각전 '찰나-물, 흐르다'

9월 10일까지 김해 무계동 웰컴레지던시

김수학(조소84-88) 동문은 찰나의 순간을 물의 움직임과 에너지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알루미늄과 크롬 용액 코팅을 사용해 격류와 폭포, 거친 파도 등에서 흐르고 흩어지는 물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총 35점의 조각을 선보인다. 문의: 055-337-7141

홍성용 동문 VR 미디어아트 전시

7월부터 강남구 도산150 빌딩

마스턴투자운용이 신축한 빌딩 도산150의 지하 1층과 1층 사이에 국내 유망 신진 예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사이버 갤러리가 들어섰다. '폭포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7월부터 홍성용(동양화97-04) 동문의 'Text Drawing Delight' 시리즈 4점을 포함한 VR 미디어아트 작품 15점이 전시 중이다. 홍 동문은 동양화에 기반을 둔 필획과 라이브 드로잉으로 잘 알려졌다.

CONCERTS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9월 7일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이금희 아나운서의 해설과 함께 참신한 국악관현악을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콘서트. 9월에는 채길룡(국악04-09·사진) 동문이 지휘를 맡았다. 모교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로 석사학위를 받은 채 동문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유망 지휘자로 선발됐다. 문의: 02-2280-4114

고성현&프렌즈 '시간에 기대어'

9월 12일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바리톤 고성현(성악81-85 한양대 성악과 교수·사진) 동문은 1982년 오페라 데뷔 후 세계 유명 오페라극장에서 주역으로 활약해왔다. 대표곡 '시간에 기대어'를 비롯해 오페라 '카르멘', '진주조개잡이', '라트라비아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곡들을 노래한다. 김광현(작곡00-07) 동문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다. 마포구민 및 65세 이상 50% 할인.

문의: 02-3274-8600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or.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 사

김광현(건축71-75 모교 명예교수) 7월 28일 충남도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기획, 자문하는 '충남 총괄건축가'로 위촉.

신종계(조선공학 73-77 모교 명예교수)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전문위원회(CESS) 신임 의장에 선출.

설원태(영어교육 77-83 전 세계언어대 저널리즘 교수) 최근 데노프 기업 및 교육 대학 영문과 교수 취임.

류 진(영문78-83 풍산 회장·본회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8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새 회장에 추대.

안호원(HPM 6기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최근 미국 버지니아 바이블 대학교 한국 캠퍼스 부총장으로 취임.

공병영(행대원90-03 전 충북도립대학 총장) 7월 27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제2대 총장에 취임.

김용빈(법학79-83 사법연수원장) 7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 37년 만의 외부 출신 사무총장.

홍원표(전자79-83 전 삼성SDS 사장) 7월 31일 SK쉴더스 대표에 내정.

이병균(ABKI 6기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7월 31일 한국잡월드 제5대 이사장에 취임.

강대희(의학81-87 모교 의과학과 교수) 7월 17일 부산시 첨단의료산업 정책고문에 위촉.

김용식(건축82-86 전 현대건설 부사장) 8월 1일 한미글로벌 북미사업 총괄 사장에 선임.

김재형(사법83-87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위촉.

이학재(축산83-88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최근 국제공항협의회(ACI) 아태·중동지역 이사에 선임.

한문희(ACAD 65기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 7월 21일 코레일 신임 사장에 임명.

조정연(의학84-90 모교 영상의학과 교수) 7월 14일 모교병원 강남센터 원장에 선임.

정태주(무기재료 85-89 안동대 전기신소재공학과 교수) 7월 1일 안동대 제9대 총장에 취임.

김영섭(AMP 75기 도레이첨단소재 필름사업본부장) 7월 31일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TBSK)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김범수(산업공학 86-90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8월 1일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임명. 임기는 8월 2일부터 3년.

김정환(경제86-90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7월 28일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에 취임.

유창범(경제86-90 국민은행 자산운용1본부장) 7월 17일 KB증권 시장운용본부장(전무)에 선임.

임기근(경영86-92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7월 23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에 임명.

김동일(경영88-93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7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임명.

박정훈(경영88-92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7월 21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에 내정. 임기는 2년.

김범석(경영89-93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7월 23일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임명.

박진효(AIP 61기 전 SK쉴더스 대표) 7월 21일 SK브로드밴드 신임 사장에 내정.

선중규(경제92-99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7월 28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국장급)으로 승진.

유인상(기계항공 95-99 전 LG CNS 상무) 7월 12일 CJ올리브네트웍스 신임 대표에 선임.

김태희(의류99-06 배우) 10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애드아시아 2023 서울' 앰버서더에 위촉.

강사라(지구환경과학00-04 울산과기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최근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 단장에 선임.

김유진(대학원04-06 IMM오퍼레이션즈본부장) 7월 14일 한샘 신임 대표에 선임.

김연욱(의학07-11 분당모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근 미국흉부학회 흉부종양분회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수 상

노유섭(국어교육 72-76 시인) 6월 26일 시집 '꽃배추를 아시나요'로 제4회 박남수문학상 수상.

백민경(화학09-13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7월 18일 포니정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에 선정.

기 타

이길여(의학51-57 가천길재단 회장) 최근 키르기스스탄 보건국과 국회로부터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 받음.

대한민국학술원 신임 회원에 동문 6명

신동운

우경식

고동환

한인구

한재용

김용균

대한민국학술원은 7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7명의 신임 회원을 선출했다. 이 가운데 6명이 동문이다. 학술원 회원 자격은 평생 유지되며, 정부로부터 다양한 학술연구 지원을 받는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동운(법학71-75) 모교 명예교수 △우경식(해양75-79) 강원대 명예교수 △고동환(국사77-81)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한인구(무역75-79)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재용(축산80-84) 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김용균(농생물80-84) 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

박호전(경영62-66 삼덕 대표이사 회장) 7월 27일 삼덕장학회 장학생 15명과 간담회 개최.

허경회(경제73-77 권진규기념사업회 대표) 서울 관악구 남서울미술관 1층에 근현대 조각가 권진규의 상설전시관 마련. 허 동문은 권진규의 여동생 권경숙의 아들 4형제 중 둘째.

고 진(전자80-84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7월 24일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와 한국과 인도의 공공 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 논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신동수(토목52-56 동명기술공단 회장) 7월 21일 별세(93세)
김재윤(경제52-56 전 한국은행 부총재) 7월 11일 별세(91세)
장명수(건축52-56 전 전북대 총장) 7월 23일 별세(90세)
박명자(간호56졸 전 석관중 교장) 7월 10일 별세(89세)
반성우(행정53-59 전 흥국생명 대표) 7월 6일 별세(89세)
최규섭(경제54-58 전 무학그룹 부회장) 7월 19일 별세(88세)
유영익(정치55-60 전 국사편찬위원장) 7월 26일 별세(87세)
김용진(독문57-63 전 한영회계법인 상임고문) 7월 23일 별세(84세)
서기원(심리57-62 전 아나운서) 7월 27일 별세(86세)
최웅렬(섬유공학58-64 전 태화신역 대표) 6월 18일 별세(83세)
정용현(축산61-65 전 SMI컨설팅 대표) 7월 19일 별세
서맹희(법학70-75) 7월 16일 별세 (71세)
박윤우(국어교육79-83 서경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7월 24일 별세(62세)
박휴찬(전자81-85 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7월 27일 별세(60세)
홍정란(식품영양84-88 현대백화점 전무) 7월 12일 별세(57세)

- 바로 잡습니다 - 7월호(제544호) 16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장·차관 10명' 인사 동정 박스 기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동문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정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3. 6. 24 ~ 2023. 7.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확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 방법

구 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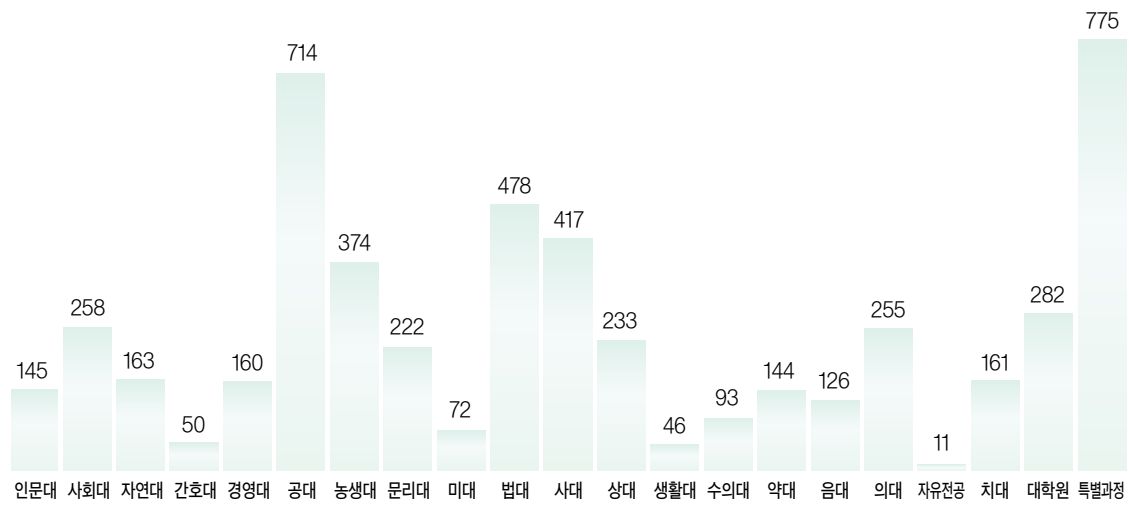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경조 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우대
- 홈커밍데이, 조찬 포럼 등 행사 초대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2023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5179명 *7월 23일 현재



상임부회장

△안창영 치대 72

부회장

△최의열 사대 79 △정혜원 가정대 71

평생회비 - 일반

△강정우 수의대 01 △고대은 공대 20
△고상순 경영대 02 △구자돈 약대 58
△김대영 사회대 16 △김도열 경전원 19
△김문상 공대 76 △김미소 의대 05
△김병수 행대원 16 △김상복 대학원 98
△김수연 자유전공 17 △김예성 경전원 10
△김윤혜 사회대 07 △김장주 공대 73
△김형남 공대 90 △노혜진 인문대 05
△박선규 간호대 74 △박은숙 간호대 75
△박정연 사회대 13 △변효길 법대 21
△서대욱 농생대 10 △손인자 약대 69
△신민섭 가정대 78 △신정호 경영대 90
△양보윤 음대 94 △양수연 생활대 06
△양정재 사회대 97 △양차미 사회대 05
△염진섭 음대 73 △오경미 법대 87
△온성운 치대 18 △유선윤 사회대 88
△유수민 공대 19 △유효상 의대 02
△윤성진 법대 08 △이기보 AFB 14
△이상근 공대 96 △이석태 법대 78
△이수미 사대 16 △이 영 농생대 99
△이유경 의대 09 △이윤종 경영대 80
△이종호 공대 94 △이현정 자연대 96
△임종아 AMP 55 △장혁재 법대 96
△전예총 음대 18 △전용성 의대 74
△전희선 자연대 04 △정성은 경영대 97
△정수희 자연대 02 △정지훈 치대 13
△조정애 미대 71 △주권량 의대 69
△최동익 인문대 17 △최유진 사대 03
△최재원 음대 91 △최태호 FNP 03
△한주환 공대 83 △한충용 공대 90
△황창호 법대 51

연회비 - 이사

◆**인문대** △박태영 74 △홍성윤 73
◆**사회대** △최영섭 86 △최철영 83
◆**경영대** △구자일 86 △손문영 09
△진승환 90
◆**공대** △김덕재 54 △박황호 65
△안상순 65 △전대극 96 △하준환 51
◆**농대** △길용규 83 △김석동 72
△배영환 76 △손해일 67 △홍종진 57
◆**문리대** △김성수 65 △김호경 58
△김흥규 69 △정 광 62 △최경락 71
◆**법대** △김 훈 85 △박환승 83
△송병대 67 △윤경희 65 △조관행 75
◆**사대** △박효경 74
◆**상대** △장종록 57
◆**수의대** △예재길 72 △차혜진 09
◆**음대** △김혜중 69 △이상열 84
△이한돈 65
◆**의대** △박성태 58 △양승오 75
◆**치대** △고영택 58 △민병덕 64
△염도섭 91 △오세웅 90 △윤철민 82
◆**대학원** △안건훈 74
◆**경대원** △최원영 93
◆**ABP** △정공훈 22
◆**SGS** △최호운 18
◆**HPM** △이재부 23
◆**AMPP** △정기태 19
◆**AFB** △강미희 17
◆**AMPFRI** △이동훈 40
◆**ACPMP** △김세호 01
◆**FIP** △성득영 07
◆**GLP** △최도승 24
◆**BCP** △한권일 23
◆**AWASB** △유시훈 07

연회비 - 일반

◆**인문대** △김윤희 96 △김종일 85
△박태환 12 △박형순 16 △유종식 84
△이정환 11 △정윤아 89 △조연수 20
△최규현 08 △최윤정 18 △편일범 86
△하정윤 10
◆**사회대** △강진선 16 △권혁주 82
△김가현 14 △김석범 92 △김성현 18
△김제열 02 △박기태 95 △송용식 69
△오기원 97 △윤석민 81 △이요셉 21
△장소윤 21
◆**자연대** △김세훈 17 △김희훈 10
△박좋아 08 △박준우 15 △서기성 98
△유명훈 13 △윤성현 19 △이찬우 17
△이태진 04 △이호성 19 △정동규 17
△황병천 72
◆**경영대** △강태구 06 △김민경 16
△김송현 19 △김승규 75 △박종선 99
△성기만 84 △윤석현 88 △이광영 82
△정인화 81 △최지윤 07 △허 장 83
△홍수진 19
◆**공대** △고대현 93 △공석붕 51
△김경범 78 △김경태 96 △김기태 11
△김동형 15 △김병희 06 △김상섭 83
△김상윤 06 △김신영 10 △김정호 58
△김준수 07 △김지성 17 △김철구 65
△김태녕 86 △김형균 01 △민동호 71
△박충수 83 △박태준 15 △방현우 97
△배영경 07 △신성수 13 △신형순 00
△이기태 20 △이승우 19 △이예석 17
△이원보 92 △이종수 82 △이현식 61
△이현우 17 △전복현 58 △정휘찬 20
△진행섭 66 △최경만 71 △홍성목 54
◆**농대** △김대원 83 △김흥태 80
△박광선 64 △박정근 63 △박종호 81
△양화식 71 △유진춘 67 △이영돈 64
△차순길 59 △곽정은 21 △박동근 21
△변진웅 88 △오준표 98 △이석호 07
△이정우 19 △최창호 90
◆**문리대** △김재영 54 △김화중 54
△박범진 60 △임채욱 57
◆**미대** △배경희 02 △송 휘 20
◆**법대** △김중양 65 △김형돈 79
△박원영 02 △용석남 16 △윤용근 82
△임영환 86 △임태유 59 △임혜리 05
△정도성 93 △조태열 75 △좌정원 01
△하준석 05 △허규철 63
◆**사대** △박귀영 88 △박선영 17
△박인호 70 △서민경 19 △이기연 01
△이순권 61 △이승현 21 △이정희 15
△이훈재 87 △인안숙 54 △임광수 68
△장재철 16 △정은숙 57 △채희두 61
△최치원 19
◆**상대** △김홍배 63 △정진택 68
△조성근 67
◆**생활대** △김세리 09 △박재현 15
△박지연 10 △정나영 03 △정소희 17
△진영진 21
◆**수의대** △김협수 81 △이영주 83
△전영일 58 △한인식 64
◆**약대** △방재한 17 △양호길 80
△윤군식 00 △윤병길 71 △정양수 02
△조범기 17
◆**음대** △노경아 84 △박신준 14
△심지영 14 △임재린 11 △장주은 18
△전인창 88 △조익현 82 △한정민 88
△한지은 12
◆**의대** △김경식 17 △김동현 79
△김리현 08 △김창연 17 △서승환 18
△석호동 21 △안현균 19 △유종근 71
△이슬비 21 △이원기 56 △이윤재 17
△이재호 21 △이지윤 17 △장인진 81
△전세현 17 △한지원 02
◆**자유전공** △김유연 17 △박지연 12
◆**치대** △김봉구 78 △박동귀 55
△박이자 60 △양재호 64 △이가은 01
◆**대학원** △김인배 68졸 △이성흠 84
△전미희 81
◆**경대원** △이규항 70
◆**국대원** △김혜주 21 △손수경 20
◆**법전원** △이수민 20 △허은지 18
◆**치대원** △도경록 16 △윤정민 15
△윤주열 16 △이세민 16
◆**환대원** △임효진 21
◆**공전원** △송승우 21 △이인규 21
◆**국농원** △김범석 17
◆**AMP** △김종길 29 △박중서 11
△이상택 40
◆**ACAD** △강기필 14 △석현철 95
◆**HPM** △최종기 06
◆**AMPP** △한태영 10
◆**GLP** △마명욱 23 △손재문 34
△임윤성 27
◆**ASP** △남정현 14 △송희원 10
△이미영 31
◆**KFL** △최승복 20
◆**AWASB** △양승오 10

관악회 기부금
7.1~7.31/당월금액(누계금액)

△서민석 공대 61 1000만원 (1000만원)
△류명준 인문대 90
867만9000원 (6575만1000원)
△약학대학동창회 500만원 (1억7125만원)
△이광진 법대 77 200만원 (600만원)
△이춘복 AMP 81기 125만원 (250만원)
△김경환 의대 86 100만원 (1100만원)
△김동호 문리대 62 100만원 (2억1500만원)
△김원기 GLP 31기 100만원 (1050만원)
△배무환 경대원 66 100만원 (433만원)
△조현오 의대 64 100만원 (700만원)
△이기방 사대 59 90만원 (2330만원)
△우희명 GLP 37기 50만원 (2100만원)
△김한중 공대 68 30만원 (600만원)
△이창건 공대 49 30만원 (360만원)
△박성수 수의대 06 20만원 (20만원)
△박주미 치대 81 20만원 (420만원)
△용환승 공대 79 20만원 (480만원)
△이윤종 의대 87 20만원 (360만원)
△정두영 인문대 84 15만원 (105만원)
△최병묵 사회대 78 15만원 (715만원)
△강지훈 공대 89 10만원 (40만원)
△김경호 사회대 86 10만원 (420만원)
△김웅배 농대 57 10만원 (30만원)
△김현일 사대 13 10만원 (370만원)
△박성철 치대원 10 10만원 (20만원)
△손동화 농대 73 10만원 (10만원)
△안용주 음대 79 10만원 (1650만원)
△윤병재 의대 93 10만원 (400만원)
△이경준 공대 98 10만원 (550만원)
△이승무 사회대 72 10만원 (510만원)
△이유림 공대 16 10만원 (10만원)
△이종일 농대 68 10만원 (110만원)
△장문철 행대원 74 10만원 (120만원)
△정혜선 사회대 83 10만원 (450만원)
△최수아 보대원 01 10만원 (260만원)
△어명하 사대 59 5만원 (415만원)
△이언의 인문대 90 5만원 (93만원)
△전기평 의대 06 5만원 (400만원)
△조효정 사회대 97 5만원 (460만원)
△최이슬 의대 14 5만원 (40만원)
△최정운 인문대 93 5만원 (25만원)
△한기룡 경대원 71 5만원 (190만원)
△이상의 사대 06 3만원 (177만원)
△안수진 경전원 11 2만원 (62만원)
△김철진 사대 71 1만원 (21만원)
△이동철 공대 95 1만원 (18만원)
△이상봉 인문대 86 1만원 (52만원)
△이성민 자연대 10 1만원 (5만원)
△장성욱 경영대 85 1만원 (37만원)
△최윤정 FIP 19기 1만원 (2만원)
△박영신 사대 87 5000원 (20만원)

※ 관악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신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공단인가?

추억의 창

김훈동
농학63-69
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수필가·시인

대학에 들어와 선배들을 만나면 너나없이 "몇 공단인가?" 물었다. 처음 듣는 말이라 웬 공단인가 해서 어리둥절하며 멈칫했다. "몇 학번이야?" "아아, 네 63이야요", "63이 뭐야?" "63109입니다." 그래도 선배는 이해가 안 되는지 재차 물었다. "몇 공단인지 모르는구나" "63학번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선배는 내 말을 알지 못해 '이상한 놈'으로 치부한 듯 어정쩡한 표정이었다.

그 후에 선배의 물음을 알게 됐다. 선배들은 내가 입학하기 직전에는 단기 학번을 썼다. 그래서 끝자리는 0을 붙여 3공단, 5공단이라고 했다. 우리 세대부터 서기 학번을 쓰기 시작해서 서로가 동문서답하듯 한 거였다. 63학번이 서기학번의 시조다. 불통과 소통이 얼마나 사람 사이에 중요한지 알게 된 계기였다. 기반정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응력에 차이가 있다.

무엇이든지 첫 느낌이 중요하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물건 고르는 것도 그렇다. 서둔벌에 자리한 농대 캠퍼스는 울창한 숲속이었다. 입학하여 처음 만난 대학교수는 당시 국가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을 겸임하던 유달영 교수였다. 사회적 활동 폭도 넓고 많은 저서를 낸 문필가로서도 유명했다.

"그대 아끼게나 청춘을! 이름 없는 들풀로 사라져 버림도, 영원히 빛나는 삶의 광영도 젊은 시간의 쓰임새에 달렸거니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게나" 성천 유달영 교수의 글이다. 얼마나 멋진 글인가. 내가 대학생이 되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글이 나를 인도하는 듯 확 끌림이 왔다.

그 당시 유달영 교수는 화훼학을 가르쳤다. 꽃, 조경 등을 인문학적으로 강의하여 수강생들이 몰렸다. 나는 전공과목이었지만 다른 과 학생들은 선택과목으로 수강했다. 학기말 시험 때 일이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다. 유 교수는 다음 날 흑판에 시험문제를 적었다. '꽃 이름을 열거하라.' 심오한 화훼학 이론 중심으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것에 비하면 의외의 문제였다. 시험문제를 보자마자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시험은 끝났다. 서로 "너, 꽃 이름 몇 개 썼냐?"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 4학년) 재학생

선배는 이해가 안 되는지 재차 물었다. "몇 공단인지 모르는구나" "63학번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후에 선배의 물음을 알게 됐다.

묻기 바빴다. 많이 쓴 친구들은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원 재시험'이었다. 유 교수는 "대학생들이 초등학생처럼 꽃 이름만 열거했다."면서 "식물 분류학상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열거하고 거기에 속하는 꽃 이름을 적어야 대학생다운 답안이다"라고 따끔한 질책을 했다. 올바른 학문의 길을 일깨워 준 일화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일한 산업이 농업뿐이었다. 국민 80%가 농업에 매달렸다. 식량부족국가로 해외원조를 받던 시절이었다.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을 만큼 만성적인 쌀 부족에 시달렸다. 주먹만한 쌀을 육종하여 배고픈 설움을 이겨내고 싶었다. 통일벼를 육종한 허문회 교수실에 둥지를 틀고 4년간 한눈팔지 않고 나름 열심히 전공에 충실했다. 하지만 졸업할 무렵 허 교수께서 "김 군, 자네는 학계로 나가지 말고 농협에 들어가 농협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게나." 존경하던 은사의 말씀이니 엇박자를 낼 수도 없었다. 곁에서 나를 지켜본 은사의 충언에 따라 농협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유달영 교수의 글귀대로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았나'를 늘 생각하며 30여 년 부지런히 달려 농협 생활을 마감했다. 허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고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 세월만 축냈는지 모른다. 내겐 대학은 평생 울림을 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배움터이자 삶의 진로를 뚫어가는 방향타였다.

*김 동문은 재학 중 '시문학'으로 등단했고, '수필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수필문학 추천작가회장, 수원문인협회장, 수원예총 회장을 역임하고 수원문화재단 이사로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수필집 '그냥, 지금이 참 좋다', '넌, 그 많은 책 다 읽냐?' 시집 '나는 숲이 된다', '틈이 날 살렸다'를 냈다. 농협대 교수, 농민신문 편집국장, 경기농협 본부장, 경기도적십자사 회장을 지냈다.

오늘도 대학언론, 정상영업합니다

재학생의 소리

윤성은
언론정보22입
서울대저널 사회부장

나는 원래 말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 세상은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첫 해 여름부터 우리 대학 학생자치언론 '서울대저널'에서 기자 일을 했다.

하려던 이야기를 모두 담기에 시간은 늘 부족했고 실력도 늘 모자랐던 탓에 저널과 함께한 첫 학기는 서투르고 정신없이 지나가버렸지만, 점점 저널의 작업과 글쓰기에 익숙해지며 '서울대저널'이라는 조직 자체에도 무한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선 조금 다른 고민이 시작됐다.

거창하지만 대학언론의 사명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

'서울대저널'은 잠겨 있고 묻혀 있는 것들, 보편적인 시선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사회 소수자 의제들에 감각을 곤두세운다. 기성언론은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전문기자도 쓸 수 없는 글을 쓰며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해보려 노력한다. 이것이 오늘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학생의 역할 중 하나라 믿으며, 그것이 시대에 의미를 남기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언론을 둘러싸고는 함께 쓰고자 하는 사람도, 읽고자 하는 사람도 점점 줄고만 있다. 대학언론 활동이 '스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대학언론이 전하는 소식들이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인상 때문일 수도 있으며, 결국 학생사회의 전반적인 침체 때문일 수도 있다.

또 고질적으로 대학언론에겐 편집권을 고유하게 사수하는 것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독자층을 든든하게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이어갈 후배들을 찾는 것이 언제나 어려웠다. 다른 대학언론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곳은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는지, 발간에 필요한 돈은 넉넉하게 모이곤 하는지를 묻게 된다.

'서울대저널'의 누구도 넘치는 조회수나 댓글, 몰려드는 정기구독자를 기대하며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찍고, 쓰고, 가꾸면서도, 애정과 열정만 담아 지면을 매만지면서도 우리 저널이 곧바로 세상을 바꿀만한 변혁적인 무언가를 해내리라 믿은 것 역시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믿었던 것은 이 세상엔 대학언론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그저 믿음에 불과할지라도, 그 믿음만으로 서울대저널을 비롯한 오늘의 대학언론인들은 무언가 찍고, 쓰며,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관악논단

러시아 승리 땐 약육강식 세계 될 것

윤영관
외교71-75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장관
모교 명예교수

러-우전쟁, 자유주의 국제질서 타격
유럽인들 러시아 다음 표적 걱정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치 세력이 서방의 사주를 받아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심복이자 와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그의 주장이 허구라고 비판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러시아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었는데 러시아 측이 협상을 거부했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패한 군부가 푸틴을 오판하게 만든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2005년 4월 의회 연설에서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은 소련의 붕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잃어버린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심을 갖고, 그에 따라 2008년 조지아를, 2014년 크리미아를, 그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다음 표적이 어디가 될지 걱정 중이다. 수십 년간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결정이 그들의 긴박한 상황 인식을 드러내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져 지속되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은 국가 간에 영토주권, 자결권을 존중하고 규범기반(rules-based) 질서, 개방적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엔헌장에도 규정된 영토주권과 자결권 존중의 원칙을,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유린했다.

이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덕택에, 상대적 소국인데도 주변 대국들의 횡포를 걱정할 필요 없이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에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정신 아래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이 우리를 도와 함께 싸웠다. 또한 개방적 경제질서 덕택에 국내시장이 작은 한국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무역을 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렇게 볼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켜내는 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야 할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나토의 동쪽으로의 팽창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나토가 러시아의 세력권을 침범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구한말 자국의 세력권 확대를 위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를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강대국 간의 세력권만 챙기고, 그 사이에 낀 소국의 국민들이 스스로의 정치체제나 외교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는 제국주의 논리를,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무력을 사용해 국경의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원칙을 무시했던 북한의 침략행위마저 인정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혹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서방 강대국들이 내세운 위선적인 정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자국이 내세운 원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무시했다는 것이다. 일면 일리 있는 지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2차대전 직후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이었다. 그런데도 자국의 권력을 국제무대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규범과 연합체를 만들자고 앞장섰다. 국력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정신에 따라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였고 대표적인 연합체가 유엔이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유엔 안에서도 5대 강대국들에게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와 비토권을 준 것은 다자주의라는 이상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세상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유엔마저도 다자주의라는 이상과 권력정치라는 현실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완벽한 규범적 국제질서가 존재하기 힘든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때때로 외교정책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국제 규범을 계속 유지하자는 쪽으로 나아가는 미국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는 죽었다"면서 노골적으로 강대국 권력정치에 몰입하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를 지지할 것인가?

이라크 전쟁은 미국판 '제국적 오만(imperial hubris)'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말했을지언정, 러시아처럼 스스로의 영토확장을 꾀하거나, 무고한 시민들을 살육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거나, 핵 사용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미래의 국제질서는 규범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난무하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해 갈 것이다.

청소년 진로 교육에 숨어 있는 '진짜' 조력자들

동문 기고
김건호
역사교육10-17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 협력센터 혁신자원개발팀장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화해도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여전하다. 사랑의 방식은 시대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느 시대에서나 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로와 진학은 결부되는 것처럼 인식하기 쉽지만,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진로 영역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본 학생의 진학계획과 전혀 체험하지 못한 학생의 진학계획은 질적인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청소년 진로 교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계에서도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 진로 관련 수업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진로 담당 교사의 현실상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체험처를 직접 발굴하고 타당한 가격에 양질의 강사를 학교에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훌륭한 진로 직업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조력자들이 있다. 바로 각지에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다.

지역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필자가 있는 곳은 청소년재단에 소속된 진로 교육 협력 센터다) 학교와 연계하여 진로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체험 기관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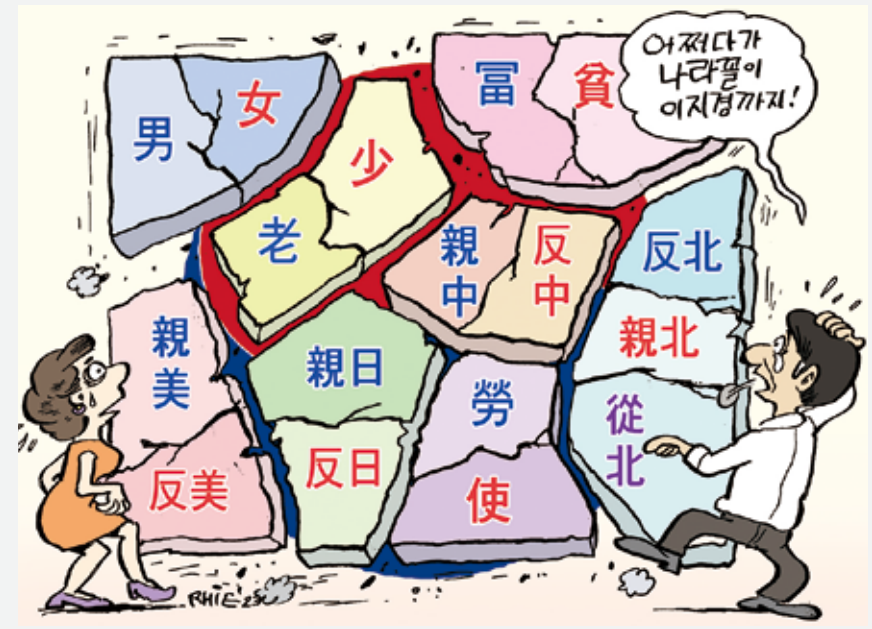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마다 개별적으로 개발 회의를 진행하고 교재를 따로 제작하며 강사 역량 강화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관내 장학사들을 통해 수업 장학도 받으며 적극적으로 보완 사항들을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옛말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처럼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품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체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 속에 청소년 진로 교육을 위해 힘쓰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동문들께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에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 진로 교육과 다양한 직업 체험이 중요하다는 점도 받아들여 동문들의 우수한 재능을 기부하고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입
덕성여대 명예교수



느티나무칼럼

광복절과 근대시민의 탄생

오정환
공법83-87
MBC 부장
본지 논설위원

1948년 5·10 총선이 발표되자 38선을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이 급증했다. 남한에도 정부가 세워져 안전해질 거라 확신한 것이다. 남로당이 선거 저지 테러를 자행해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희망을 꺾지는 못했다. 유권자 96.4%가 선거인 등록을 했고 그중 95.5%가 투표했다.

개표 결과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한민당은 29석에 그쳤다. 그러나 무소속 85석 가운데 숨은 한민당 의석이 많았다. 국회를 장악한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원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신익희 부의장과 함께 헌법기초위원회를 찾아가 자신은 정부 수립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해 겨우 대통령제 헌법안을 관철시켰다.

광복절은 본래 정부 수립 기념일
한민족, 백성 아닌 시민이 된 날

이제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에 선출했다. 이시영은 최근 '1948년 건국'을 부인해 논란이 된 이종찬 광복회장의 작은할아버지이다. 그밖에도 이승만은 거의 모든 각료를 독립투사들로 채웠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이범석 국무총리 등 해외 활동가들과, 국내에 있었어도 감옥에 한두 번은 다녀온 사람들이었다. 3대 민족 인권 변호사 가운데 김병로는 대법원장, 이인은 법무장관이 되었고, 허헌은 북한으로 갔다. 국내외 인적 자산을 건국에 총동원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을 열었다. 일제 통치와 미군정을 거쳐 드디어 38년 만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 이승만은 건국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양반의 교화나 공산당의 지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적 자치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근대시민이 탄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 길이 기리기로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경일법을 만들며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이름을 바꿔 혼선이 시작됐다. 그때까지는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이 아닌 주권 회복을 광복으로 보았다. 1951년 8월 15일까지는 '제3회 광복절'로 기념했다. 그러나 점차 민간에서 광복을 '일제로부터 해방'으로 인식하고 언론이 이에 따라가면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일이 되었다. 단순히 기산 연도가 바뀐 것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독립국가 수립의 역사적 의미마저 퇴색되어 갔다.

올해 8·15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과 함께 우리 민족의 손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운 사실도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은 5천년간 권력의 지배 대상이었던 한민족이 근대시민으로 재탄생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종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or.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

소중한 나눔의 씨앗이 관악의 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나눔의 정신을 소중히 되새기며 정성으로 마련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장학빌딩 얼굴부조, 이름각인 | 건강검진비 지원 | 장학금 명칭 부여, 가업승계·세무금융 컨설팅 | 상조서비스 지원 | 감사패, 기념물품 발송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주요행사 초청

예우내용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장학빌딩	얼굴부조	✔				
	이름각인	✔	✔	✔	✔	
장학금 명칭 부여		✔	✔	✔		
건강검진비 지원		✔	✔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	✔			
세무금융컨설팅 제공		✔	✔	✔		
상조서비스 지원		✔	✔	✔	✔	
감사패		✔	✔	✔	✔	
기념물품 발송		✔	✔	✔	✔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	✔	✔	✔
주요행사 초청		✔	✔	✔	✔	✔

※ 기부 및 예우 프로그램은 기부금 납입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장학금 명칭부여	• **5천만원 이상**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장학생 선정 가능
건강검진비 지원	• 건강검진 예약 및 비용 지원 **10억원 이상** : 평생 | **5억원 이상** : 5회 | **1억원 이상** : 1회 * **지원병원** :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차병원 청담병원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 **1억원 이상** 1:1 무료 자산관리 플랫폼 컨설팅 제공
세무금융 컨설팅 제공	• **5천만원 이상** 자산설계,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제공
상조서비스 지원	• **10억원 이상** : 장례차량, 관, 수의, 장례도우미, 묘비건립, 자서전 발간,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 • **1억원 이상** :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묘비건립 등 • **1천만원 이상** :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

※ (재)관악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신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참여 안내

무통장 입금

* **장학금 기부금 :** 신한 140-006-909438 / 우리 1005-202-771270 / 농협 069-01-272391
* **사회공헌사업 기부금 :** 신한 140-013-437837

· **예금주** : 재단법인 관악회 (※ 송금인란에 기부자 성명, 입학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 **은행계좌, 신용카드 모두 가능**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재단법인 관악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T** 02-879-8288
F 02-703-0755 | **M** 010-4212-0755 (문자수신전용) | **E** scholarship@snua.or.kr **H** www.snua.or.kr